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4년 11월 14일 금요일 제1028호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증권사 모처럼 웃었다

59개사 3분기 순익 8145억, 전분기보다 195% 급증
구조조정 등 영향 영업외이익 늘어 '눈물 젖은 흑자'

부진한 실적에 구조조정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증권사들이 오랜만에 웃었다.

3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것.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 지분매각, 비용절감 등 마른 수건도 짜냈던 결과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채권운용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하지만 시장이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반사이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14일 금융감독원과 FN가이드, 각 증권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59개 증권사의 순이익은 8145억원으로 전분기(2763억원) 대비 무려 194.8%(5382억원)나 증가했다. 증권사 59곳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46곳이나 됐다.

순이익 기준 실적 상위 3개 증권사는 삼성증권(1833억원)과 KDB대우증권(934억원), 우리투자증권(410억원) 등이다.

증권사별 3분기 실적의 특징은 구조조정 마무리와 리테일 실적이 포함됐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전분기와 달리 퇴직금을 비롯해 일회성 비용 지급 이슈가 사라졌고, 판매관리비 절감 효과도 3분기에 집중됐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채권수익이 높아지면서 회복세를 부추겼다.

반면 시장에서는 우려도 이어진다. 증권사 수익의 대부분이 구조조정과 자생력 강화보다 금리인하를 비롯한 외부 요인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3분기 순익 1위가 유력한 삼성증권의 경우 삼성자산운용 지분 매각이익과 300명에 달하는 인력 구조조정 등 '눈물 젖은 이익'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업이익보다는 영업외이익 덕택에 만든 흑자 전환이다. 삼성증권이 3분기 실적에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배경이다.

대우증권의 경우 김기범 전 사장이 물러난 지 4개월이 되었을 정도로 경영공백이 있었지만, 오랜 전통 속에서 구축해놓은 시스템 덕분에 선방한 케이스다.

김준형 기자 junior@

주요 증권사별 3분기 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증권사	순이익	비고
삼성증권	1833	삼성자산운용 매각
KDB대우증권	934	
우리투자증권	410	
한국투자증권	405	시장 전망치 평균
미래에셋	385	시장 전망치 평균



바람 잘 날 없는 아이폰6 이번엔 '메모리 게이트'

64GB·128GB 모델에 저가칩 사용 애플리케이션 충돌

'아이폰6'가 '메모리 게이트' 논란에 휩싸이며 또 다시 악재를 맞았다. 애플은 아이폰6 시리즈를 출시하자마자 단말기가 휘어지는 '밴드 게이트'와 제품 일부가 착색되는 '염색 게이트'를 겪은 바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6 시리즈는 신뢰성이 높은 '멀티 레벨 셀(MLC)'과 저가의 '트리플 레벨 셀(TLC)' 낸드플래시 메모리가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없이 무작위로 혼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맥루머 등 일부 외신들은 가격이 저렴한 TLC 메모리가 탑재된 제품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충돌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TLC 메모리는 MLC 방식보다 값이 싸고 2~3배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수명도 짧다. 그러나 애플은 제조비 절감과 고용량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아이폰6 시리즈의 64GB와 128GB 모델 상당수에 TLC 낸드플래시를 탑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수의 IT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아이폰6 시리즈 16GB는 전량 MLC가 사용된 반면, 64GB와 128GB 모델의 경우 각각 30%, 50% 이상이 TLC 메모리를 탑재한 제품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이폰6 사용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값을 지불하고 동일한 모델을 구매한 만큼, 사양이 떨어지는 부품을 사용한 제품이 있다면 '리콜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메모리 논란이 지나치게 과열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TLC 메모리가 MLC 방식에 비해 수명이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스마트폰 교체주기인 3~4년 정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

반면, 같은 가격을 주고 사양과 성능이 다른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이번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SDS 상장… 시초가 38만원 '공모가의 2배'



삼성SDS가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14일 시초가 38만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했다. 삼성SDS는 공모가 19만원의 두 배인 38만원에 장을 시작했다.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지며 낙폭을 키우고 있다. 삼성SDS의 시가총액은 29조원에 육박하며 단숨에 유가증권시장 시총 4위로 뛰어올랐다. 한편 이날 삼성SDS 상장기념식에는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과 전동수 삼성SDS 대표이사(오른쪽)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관련기사 3면

노진환 기자 myfixer@

농협경제연구소 문 닫는다

중앙회, 자본금 500억 회수해 부채탕감 계획
이달 이사회 열어 의결 방침



국내 2대 농촌경제 연구기관의 하나인 '농협경제연구소'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오는 26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 경제연구소 폐지를 의결할 방침이다.

당초 임시 이사회 안건에는 경제연구소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국감에서 농협 부채가 문제로 지적되자 중앙회 측이 경제연구소 폐지안을 급히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경제연구소를 없앤 뒤 회수되는 자본금 500억원을 부채 탕감에 사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농협경제연구소 폐지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사진〉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농협경제연구소의 실적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고, 아예 연구소를 없애버릴 생각도 있다"는 발언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또 이번 임시 이사회 안건에 농협경제연구소 폐지안이 포함된 것도 최 회장의 뜻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라는 게 농협 안팎의 시각이다.

최 회장의 이같은 방침에 농협 내부에서 일부가 연구소 폐지를 반대하며 반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내홍도 발생할 전망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내 농촌경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연구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며 "현재 실적만 내세우고 있는 최 회장의 일방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농협경제연구소 직원은 약 50여명으로 20여명은 농협에서 파견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농협 복귀가 확실시되지만, 나머지 30여명은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 승계가 불확실하다.

김태헌 기자 119@

비, 中드라마 출연료 60억… 김수현, CF 한편에 20억

'억'소리 나는 한류의 별

中, 한류스타 모시기 경쟁

비가 중국 톱스타를 능가하는 드라마 회당 출연료 1억5000만원을 받는다. 김수현은 중국 예능 프로그램 1회 출연으로 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민호는 중국 기업 CF 한 편 출연료가 20억원에 육박한다. 중국에서 한류스타들의 몸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다.

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비가 중국 드라마 '다이아몬드 러버(DIAMOND LOVER)'에 60억원의 출연료를 받고 출연한다. 이 드라마에는 중국 최고 인기배우 탕옌이 여자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러버'가 40부작이기에 비가 받는 회당 출연료는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중국의 남자 톱스타가 받는 회당 1억3000만원 선을 넘어서는 출연료다.

중국 문화콘텐츠 시장이 커지고 드라마, 영화, CF 부문에서 한류스타의 출연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류스타의 몸값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중국 드라마의 한류스타 출연료는 박해진, 권상우 등 남자 스타의 경우 7000만~1억원 선이고 장나라, 김태희, 추자현, 장서희 등 여자 스타의 경우 4000만~9000만원 선이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김태희는 최근 촬영을 마친 40부작 중국 드라마 '서성왕희지'의 회당 출연료가 8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은 지난 3월 8일 중국 장쑤위성TV 예능 프로그램 '최강대뇌(最强大脑)' 단 1회 출연료로 5억원을 받았고 이민호 역시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가 5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재석, 강호동 등 국내 최고 예능 스타의 회당 출연료 1000만원의 50배에 달한다.

한류스타의 중국 영화 출연료 역시 한국 영화 출연료의 2~3배다. 남자 한류스타의 경우 15억원 안팎을, 여자 한류 스타는 10억원 내외의 영화 출연료를 받고 있다.

배국남 대중문화 전문기자 knbae@



데이터 뉴스 DataNews

장롱 속 신용카드 1000만장 아래로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가 전체 신용카드 매수의 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 10장 중 1장은 사용되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9개 전업계 카드사와 11개 은행에서 발급한 총 신용카드 수(9294만장) 대비 휴면카드 수(952만2000장) 비중은 10.2%로 나타났다. 2010년 한때 3100만장이 넘었던 휴면 신용카드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면서 올해 6월 말 처음으로 1000만장 아래로 내려갔다. 김우람 기자 hura@





골프장 이용객 증가, 수익은 감소

올해 전국 골프장 이용객 수가 사상 첫 3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13일 발표한 '내년 골프장산업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골프장 이용객수는 지난해(2941만명)보다 4% 늘어난 305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 실적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2.0%였던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올해 -1.0% 정도로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Star 금요섹션 15~21면

커버스토리
武道의 사회경제학

박영옥 대표 ▶2



김대연 대표 ▶9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지분 판’ 이영희 회장, 전문경영인 띄우기?

〈희림〉



자사주 50만주 매도…지분율 12.09%서 8.5%로 줄어
‘평직원 출신’ 정영균 대표 26.75% 최대주주 입지 강화
가족 아닌 직원에 경영권 승계…‘아름다운 퇴장’ 준비

희림건축사무소의 창업주인 이영희〈사진〉 희림 명예회장이 ‘아름다운 퇴장’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임원직을 물러난 데 이어 자사주를 매도하며 회사 내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 이와 동시에 평직원으로 출발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정영균 희림 대표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3일 자사주 50만주(3.59%)를 시간외 매도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희림 주식은 168만3702주(12.09%)에서 118만3702주(8.50%)로 줄어들었다.

이 회장은 1970년 희림을 설립해 국내 최대 건축설계 및 건설관리(CM) 감리 전문업체로 성장시켰다.

앞서 이 회장은 9월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희림 주식의 보유목적을 경영 참가에서 단순투자로 정정했다.

이 회장이 이렇듯 회사 내 영향력을 줄이고 있는 것은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이한 점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가족이 아닌 직원에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6년 8월 정 사장 등 회사 임원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보유지분을 양도했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은 희림의 최대주주로 떠올랐다. 현재 정 사장의 희림 지분은 26.75%다.

정 사장은 서울대 건축학과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건축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4년 희림에 부장으로 입사해 2001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전체 직원 80명이던 회사를 900명이 넘는 회사로 키우고 해외사업을 확장하는 등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회장이 친인척 대신 정 사장에게 회사를 맡긴 것은 회사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이 회장은 “물러나더라도 희림은 언제까지나 이 땅에 남아 아름다운 건축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건축 설계는 결국 사람의 머리와 손으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인재가 결국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말하며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회장이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정 사장의 회사 내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희림은 최근 7년간 평균 8%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와 새로운 설계시스템 등의 구축에도 투자해 중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해외설계용역을 수주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주식농부’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대한방직’ 꽂혔다

‘주식농부’ 박영옥〈사진〉 스마트인컴 대표가 대한방직을 ‘찜’했다. 손을 대는 주식마다 대박을 터트리는 ‘슈퍼개미’ 박 대표가 구입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7~12일 네 차례에 걸쳐 대한방직 보통주 6만4890주를 매입했다. 총 14억4000만 원어치로 평균 취득단가는 2만5509원이다.

박 대표가 매입을 마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13일 대한방직 주가는 전일보다 7%나 상승하며 2만9000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영업손실 40억원 적자전환 회사 ‘찜’
보통주 6만4890주 사들이자 주가 7%나 뛰어
“당장 수치보다 미래성장성” 투자지략 관심쏠려

박 대표는 1000억원대 자산을 굴리는 개인 큰손으로, 슈퍼개미 중 가장 보유 주식가치가 높은 인물로 꼽힌다. 지난 6월 말 기준 박 대표가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평가액은 1364억원이다.

특히 작년 말 지분 평가가치가 824억원이었다는 점에서 반년 만에 540억원의 가치가 불어난 셈이다.

박 대표가 현재 보유한 종목은 △대동공업 △참좋은레져 △조광피혁 △에스피지 △한국경제TV △에이티넘인베스트 △알톤스포츠 등이다

박 대표가 이번에 선택한 종목은 대한방직이다. 대한방직은 1953년 설립됐으며 면·방직 및 염색 등의 제조, 판매업체다.

대한방직은 올해 들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해 2854억원의 매출액과 4000만원의 영업이익, 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 1220억원, 영업손실 40억원, 당기순손실 7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대한방직의 외부 경영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방직·섬유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한방직을 둘러싼 최근 경영지표 및 환경이 부정적이지만 박 대표가 이 종목을 선택한 까닭은 대한방직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숫자를 벗어나 미래 성장성을 내다봤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당장 눈앞의 숫자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투자 지론을 가지고 있다.

박 대표는 8월 한 증권사에서 강연을 통해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성공하기 위해선 변화를 읽고 혁신하며 성장하는 기업군에 투자해야 하며, 특히 장기 투자를 통해 성장의 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투자 지론을 바탕으로 박 대표는 △단순한 기업구조를 가지고 △재무상태가 안정적이며 △올바른 경영자가 있는 종목에 장기투자한다.

“좋은 볍씨를 고르듯 좋은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주식농부’라는 별칭을 얻은 박 대표. 대한방직을 통해 어떠한 투자 지략을 뽐낼지 주목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자사주 산’ 이상훈 대표, 주가상승 감지?

〈한솔제지〉

이상훈 한솔제지 대표가 취임 2년 만에 처음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솔제지에 따르면 이상훈 대표는 지난 11일 한솔제지 주식 1만주를 장내 매수했다. 주당 매입가격은 8990원으로 총 매입 규모는 약 9000만원이다. 이번 지분 매입으로 이 대표의 지분율은 0.02%가 됐다.

이 대표의 지분 매입 소식은 한솔제지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11일 당일에는 3.67%, 12일에는 1.5% 상승하며 9460원까지 올라왔다.

그동안 한솔제지는 주가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대표는 2013년 그룹 최초의 외부 영입 CEO로 주목을 받으며 등장했다. 화려한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취임했을 당시 1만2000원대였던 한솔제지의 주가는 2년 사이에 25%가량 하락하면서 9000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주당 8990원에 1만주 사들여
주식매입 소식에 상승세 타
1.5% 오른 9460원에 마감
저평가우량주 ‘바닥론’ 솔솔
전문가 “4Q 실적회복 전망”

하지만 한솔제지의 주가 부진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다. 컴퓨터 보급과 정보기술(IT) 확산으로 업황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환율 변동성 확대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솔제지의 주가는 한때 8000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최근 한솔제지의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솔제지의 주가 수준이 기업가치 대비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주가 바닥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자사주를 매입하자 한솔제지의 향후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단 시장은 이틀 동안 주가를 끌어올리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주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이 책임경영을 실천에 옮긴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대표의 자사주 매입은 한솔제지의 발목을 잡던 실적이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과도 절묘하게 맞물리고 있다.

최근 우리투자증권은 한솔제지에 대해 “4분기는 한솔제지의 실적 회복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세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통적인 제지업계 연간 최대 성수기에 진입했고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채산성 개선 역시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관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올해부터 특수용지 매출이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329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46%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선영 기자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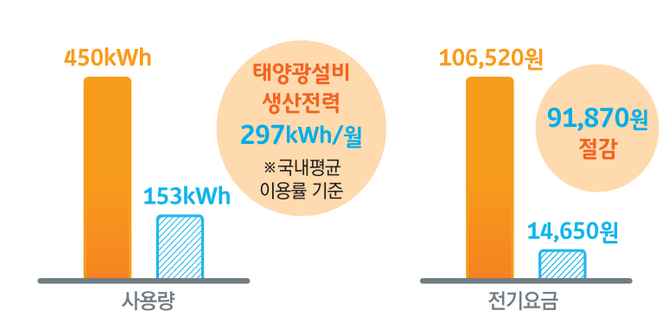


사업개요

- **참여자격** 월평균 350kWh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 공동주택포함 단, 계량기 별도 및 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 제출시 가능
- **신청기간** '14년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대여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직접 신청
- **약정기간** '14년 태양광설비 설치완료 후 최소7년
  * 소비자 희망시 최대 15년까지 사용 가능
- **대여료** 월 대여료 상한 70,000원/월이며, 동 금액의 범위내에서 대여사업자별로 다름
  * 태양광 설치완료후 8년 이후부터 15년까지의 월 대여료 상한은 35,000원/월

소비자 혜택 | 일정기준 이상의 전력소비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대여료 지불과 전기료 납부로 일정수익 가능

예시 월 평균전력사용량 450kWh인 가구가 3kWh설비를 설치한 경우



*전기요금 절감액: 월간 약 21,000원, 연간 약 25만원

태양광 대여 사업자 현황

대여 사업자명	쏠라이앤에스(주)	에스이아이비(주)	한빛이디에스(주)	한화큐셀코리아(주)
홈페이지	www.solarens.kr	www.s-energy.com	www.hanbiteds.co.kr	www.hanwha.com/solar
연락처	(055)263-6868	(070)4339-7162	(042)862-5882	(02)789-6332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에너지관리공단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대여사업자별 대여료 등 관련사항은 대여사업자에게 직접문의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 한국태양광산업협회(www.kopia.asia)에서 확인

코스피 입성 첫날 삼성SDS '시총 4위' 화려한 신고식

시초가, 공모가의 2배 기록

그룹 지배구조 개편 '프리미엄'에
사물인터넷 등 신사업 강화 기대
3분기 실적부진에도 시장신뢰 높아

삼성SDS가 드디어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했다.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혔던 만큼 삼성SDS의 상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주가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다.

증권가에서는 삼성SDS의 목표가를 최대 50만원까지 제시하고 있다. 삼성SDS의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로 향후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1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총 7개 증권사가 제시한 삼성SDS의 평균 목표주가는 41만원선이다. 가장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은 유진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으로 35만원을 제시했다. 가장 낮은 목표가라고 해도 공모가 19만원을 훨씬 웃도는 가격이다.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은 유안타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으로 50만원을 제시했다. 이밖에 신영증권 46만원, 우리투자증권 44만원, 하이투자증권 36만원 등을 제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삼성SDS의 목표주가를 이처럼 높게 책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문이다.

전병기 이트레이드 연구원은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삼성SDS의 주가는 회사 고유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를 넘어서는 프리미엄이 붙어있는데, 결국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이어 "삼성SDS의 목표주가를 산정할 때 오너 일가가 직접 지분을 소유한 SK C&C의 사례를 고려했다"며 "삼성SDS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직접 소유한 기업이므로 향후 그룹 지배구조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트레이드증권과 함께 50만원을 제시한 유안타증권은 "사물인터넷과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신성장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배구조 이슈뿐만 아니라 삼성SDS의 사업 전망도 밝은 편이다. 삼성SDS는 캡티브 시장(그룹 계열사 간 내부 시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신규상장 신청일인 지난 10일 기준 삼성전자(22.6%) 등 59인이 6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SDS는 지난해 개별재무제표 기준 4조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당기순이익 2429억원을 시현했다. 다만 지난 3분기는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한 1조8024억원을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9.27% 감소한 1315억원을 기록한 것.

삼성SDS는 이러한 실적 부진에 대해 삼성전자의 물동량이 줄고, 그룹 관계사 IT투자가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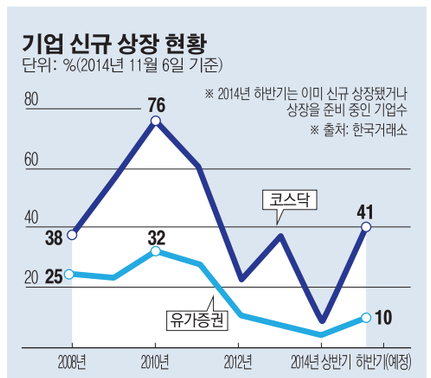
최찬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4분기 실적 호조를 보일 것"이라며 "물류 업무처리아웃소싱(BPO)을 제외한 헬스케어 IT나 사물인터넷에서 창출될 추가적인 신규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반영할 경우 삼성SDS의 목표주가 35만원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삼성에스디에스(주)가 14일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됐다. 전동수 삼성에스디에스(주) 대표이사(왼쪽 네번째)와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 세번째)이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규상장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공모 일정 확정된 업체

업체명	일정	희망공모가
디에이테크놀로지	11월 10~11일	6600~8500원
유안타스팩1호	11월 10~11일	2000원
IBK스팩2호	11월 10~12일	2000원
파티게임즈	11월 10~12일	1만500~1만3000원
탤콘	11월 13~14일	1만2500~1만4500원
KTB스팩1호	11월 13~14일	2000원
씨에스윈드	11월 19~20일	3만1000~4만3500원
하이스팩2호	11월 20~21일	2000원
에프엔씨엔터	11월 24~25일	2만4000~2만8000원
대창스틸	11월 25~26일	2000~2500원
SKC코오롱PI	11월 26~27일	1만2500~1만5000원
한국스팩2호	12월 1~2일	2000원
동부스팩2호	12월 2~3일	2000원
비씨월드제약	12월 3~4일	1만2000~1만5700원
골든브릿지스팩2호	12월 8~9일	2000원
제일모직	12월 10~11일	4만5000~5만3000원

삼성SDS 이어 제일모직 내달 상장…19곳 예비심사 통과

"고마워 삼성" 올 IPO 규모 4조 넘을 듯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으로 올해 국내 기업공개(IPO) 규모가 4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국내 증시에 유가증권시장 3개사, 코스닥시장 28개사 등 모두 31개사가 신규 상장했으며 현재까지 이뤄진 IPO 규모는 약 1조855억원이다.

이날 상장하는 삼성SDS와 내달 상장을 앞둔 제일모직을 감안하면 올해 IPO 규모는 최소 3조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외에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3개사와 코스닥시장에 16개사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 중 일부만 상장한다고 가정해도 올해 IPO 규모는 4조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IPO 시장 규모는 삼성생명이 상장한 지난 2010년 10조908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1년 4조2558억원, 2012년 1조94억원, 2013년 1조3097억원으로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 들어 삼성그룹 내 2개 계열사가 상장에 나서면서 IPO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연간 IPO 규모를 4조원으로 가정할 때 삼성SDS와 제일모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웃돈다.

삼성SDS는 1조1589억원 규모의 공모청약을 받았다. 일반공모 청약에는 15조5520억원의 증거금이 몰려 134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20일 상장 적격 판정을 받아 다음 달 중 상장이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일모직의 희망 공모가액은 4만5000~5만3000원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공모 규모는 1조3000억~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외에 풍력타워제조업체인 씨에스윈드가 오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씨에스윈드는 풍력발전기 날개와 터빈 지지 구조물을 만드는 업체로 관련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1위다. 씨에스윈드는 오는 19일부터 양일간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 공모가액은 3만1000~4만3500원으로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가 확정된다. 공모 규모는 1800억~2600억원으로 예상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11월 들어서만 5개사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삼성SDS가 불붙인 IPO시장 열기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더해 가고 있다.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합작해 만든 SKC코오롱PI는 공모 규모 2000억원대로 최대 코스닥 공모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예 기자 sysy@

'애물단지' 삼성그룹株펀드 부활 '날갯짓'

최근 1주일간 수익률 2.9% 기록
대신레버리지 4.21% 등 크게 개선
이달 들어 256억 신규자금 유입

그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 온 삼성그룹주 펀드들이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상장 기대감으로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신규 자금 유입도 두드러지고 있다.

연초 들어 최근까지 -10%가 넘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던 삼성그룹주 펀드들은 최근 1주간 양호한 성적을 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력 계열사들의 실적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삼성그룹주 펀드의 수익률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것. 하지만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연이은 상장과 이로 인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률이 호전되고 있다.

14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주간 삼성그룹주 펀드들은 2.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 유형 평균 -1.44%을 앞질렀다(기준일:2014. 11. 6). 대신삼성그룹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4.21%), 미래에셋TIGER삼성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3.30%), 삼성KODEX삼성그룹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3.05%),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2.85%) 등 주요 삼성그룹주 펀드들의 1주간 수익률이 크게 개선됐다.

수익률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순유출을 이어가던 삼성그룹주펀드는 이번 달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실제 지난 7~8월 당시 매달 1000억원 넘게 빠져나갔던 펀드 환매 규모는 9월 665억원, 10월 113억원으로 줄었다. 11월 들어서는 아예 순유입으로 전환, 13일까지 총 256억원이 뭉칫돈이 유입됐다.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최근 주주 친화적 정책과 향후 실적 턴어라운드로 성과가 개선된 만큼 삼성그룹주 펀드의 성과 개선을 더 지켜볼만 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창헌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본부 팀장은 "삼성그룹주 중에서도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특히 많이 올랐다"며 "삼성전자는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부분, 삼성생명은 금융지주사가 될 가능성 등에 따라 과도했던 낙폭을 만회한 부분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삼성자산운용 ETF운용팀장도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과 향후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친화적 정책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다"며 "특히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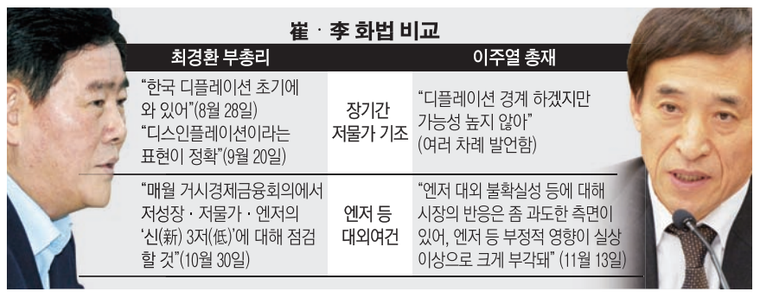
김경아 기자 kakim@



경제부총리·한은총재, 경제인식 공유한다지만…

'위기' 강조하는 崔, '심리' 다독이는 李

최경환 "한국 저성장 덫 빠져"
'디플레' 이어 또 경계심 조성
이주열 "디플레 가능성 낮아"
엔저 가속에 수출 타격 '선긋기'
경제 두 수장 '화법' 이목 쏠려



崔 · 李 화법 비교

최경환 부총리		이주열 총재
"한국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어"(8월 28일)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정확"(9월 20일)	장기간 저물가 기조	"디플레이션 경계 하겠지만 가능성 높지 않아" (여러 차례 발언함)
"매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저성장 · 저물가 · 엔저의 '신(新) 3저(低)'에 대해 점검할 것"(10월 30일)	엔저 등 대외여건	"엔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엔저 등 부정적 영향이 실상 이상으로 크게 부각돼" (11월 13일)

말 한마디로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경제·재정 정책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 두 수장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화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 부총리가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위기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발언을 자주 하는 데 반해 이 총재는 조심스럽고 절제된 어조로 불안해하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다독이는 데 주력한다. 이들은 매번 경제에 대한 인식을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두 발언에서 느껴지는 온도차는 크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한국이 저성장의 덫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덫'이라는 단어를 통해 위기에 대한 경계심을 환기시켰다.

그는 앞서 경제수장들이 입에 담는 것조차 금기시 하는 디플레이션이란 단어를 써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월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파장이 커지자 한달 후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며 발언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이미 시장의 장기 경제시계는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후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취임 직후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화두로 제시해 여론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기도 했다.

반면 이 총재는 최 부총리가 촉발시킨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경계하겠지만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지나친 불안감 조성을 진화하는 데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최근 고조되고 있는 엔저와 수출에 대한 우려에 '선긋기'를 했다. 엔저는 동시에 나타나는 강달러로 그 영향이 상쇄되면서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고, 수출도 미국의 경기 회복세 등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수장의 화법이 대조되는 것은 경력과 정책목표가 다른 것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정통관료와 달리 정치인으로서 오랜 기간 지낸 바 있어 소위 '섹시한 표현'으로 여론의 이목을 끄는 것이 습관으로 배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해 오히려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처럼 말이다.

이와 달리 '한은맨'인 이 총재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은의 최대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안정모드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진영 기자 mint@

내 일자리는 어디…



'2014 글로벌 기업 채용박람회'가 1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등록을 위해 입장시간 전부터 줄을 서있다. 글로벌 기업 채용박람회는 '내일을 만나다, THE WORLD IS YOURS!'를 슬로건으로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주최하고 외국계 금융회사 및 글로벌 투자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상수지 흑자 행진은 고령화 때문"

KDI '인구구조 변화 영향' 보고서
유·청년층 감소에 투자수요 축소
거시경제 균형 구조개혁 강화 필요

최근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유·청년층 비중이 줄고, 중·장년층이 느는 인구고령화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거시경제 균형을 회복하려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유·청년층 인구비중의 감소로 투자수요가 축소되고, 중·장년층 비중 증가로 저축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추세적으로 확대돼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부분은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중·장년층 인구비중의 증가가 저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또 출생률 저하로 유년인구가 줄어들면서 상품 수요뿐만 아니라, 교육·주택 등에 대한 투자수요를 감소시켜 투자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비중 감소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아지면서 투자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보고서는 유·청년층의 인구비중이 1%포인트 줄어들고, 중·장년층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0.5~1.0%포인트 상승한다고 추정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국내 투자수익률이 하락하면 노후준비를 위한 국내 저축금액이 해외에 투자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GDP의 5% 내외에 이르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장년층 인구비중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투자율을 높이는 유·청년층의 인구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령화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고령층 인구비중 증가 영향이 가시화되는 2020년 이후 점차 축소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전민정 기자 puri21@

日 앞선 관세실익 '기대' 농축산업은 피해 '우려'

豪·加와 FTA 비준 속도
호주 5년·캐나다 10년 내 관세 철폐
연내 협정 발효 땐 시장 선점 효과
호주산 쇠고기 시장점유율 절반 ↑
관세 없어지면 국내시장 잠식할 듯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우리나라가 호주,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가 유력해지면서 일본에 앞서 관세혜택의 실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는 더욱 당겨졌다는 평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호주, 캐나다와 맺은 FTA을 내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키로 13일 합의했다.

FTA가 비준을 받으면 상대방에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나 양측이 별도 합의하는 시기에 발효된다.

특히 정부는 내년초로 예상되는 일·호주 FTA의 발효 시기에 앞서 연내 발효를 목표하고 있다. 한·호주FTA에는 발효 즉시 관세를 낮추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관세를 인하하게 돼 있다. 이와 달리 일·호주FTA는 발효 즉시 1차 관세 인하, 차기 회계연도 첫날(4월 1일) 2차 관세 인하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연내 발효를 하면 일본보다 관세 혜택을 빨리 볼 수 있어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

한·캐나다FTA는 발효 직후 1차 관세 인하를 한 후 1년 단위로 낮추게 돼 있지만 서두르는 편이 낫다는 분석이다.

발효되면 호주FTA는 5년 안에 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의 관세를 철폐하게 돼 있다. 캐나다FTA의 경우 10년 내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하게 돼 있다.

특히 호주는 소형(배기량 1000~1500cc)·중형(1500~3000cc) 휘발유 승용차를 비롯해 가전제품, 냉연강판, 일반기계 등에 붙는 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대형(3000cc 이상) 휘발유 승용차, 자동차부품 등의 관세는 3년 안에 없앤다.

캐나다는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6.1%의 수입 관세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고 자동차부품, 냉장고, 세탁기 등의 관세는 세부 품목에 따라 FTA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철폐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이들 FTA 발효시 최대 수혜 품목은 승용차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작년 기준 대호주,캐나다 수출액 가운데 승용차는 각각 20.5%(19억6000만 달러)와 42.8%(22억3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여기에 FTA가 발효되면 호주와 캐나다에서 일본보다 먼저 다른 주요 공산품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농축산업은 최대 피해처가 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는 10년 안에 호주산 제품 대부분(품목수 기준 94.3%, 수입액 기준 94.6%)의 관세를 없앤다.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수 97.5%, 수입액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

호주와 캐나다 또한 농축산물을 한국시장 공략 대상으로 손꼽고 있다. 한국은 호주와 캐나다산 쇠고기에 붙는 40%의 관세는 모두 15년에 걸쳐 철폐한다. 2030년이 되면 두 나라 쇠고기가 동시에 무관세로 들어올 전망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호주산은 냉동을 제외하고 10년 안에, 캐나다산은 5~10년 안에 관세를 없앤다.

전문가들은 현재 관세율 속에서도 호주산이 작년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의 약 55%로 1위를 차지했음을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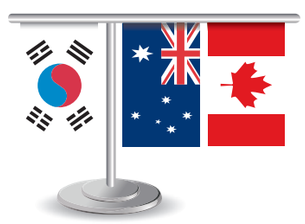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선 캐나다산이 약 14%로 2위다. 때문에 이들 외국산은 관세마저 사라지면 국내 시장을 더욱 잠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2조10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 피해 대책을 이미 세운 가운데 각종 지원자금의 금리 인하,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 연장 등 보완책을 마련해 수입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한-호주 · 캐나다 FTA 비준, 발효 절차 진행상황

호주 4월8일 정식서명	캐나다 9월 22일 정식서명
1.외교부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9월)	
2. 국회 외통위 심의의결 후 법안소위 통과 (11월 13일)	
3. 국회본회의 심의 의결(12월 2일까지 처리예정)	
4.국회의결 즉시 대통령 전달-대통령 15일 이내 서명(비준)	
5. 양국간 국내절차 완료 서면 통보	
6. 30일 이후 또는 합의한 날 발효	



경주 방폐장 사용허가 또 보류

"방사성물질 지하수로 나올라"
지역 주민 반대에 내달 재심사

지난 6월 착공 8년만에 완공된 경북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의 사용허가가 또다시 미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31회 원안위 정기회의를 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 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다 결국 12월 중순 회의로 의결을 연기했다. 방폐장은 위원 5명 이상의 '합격'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 허가를 낸 경주 방폐장은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보완 후 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용전 검사를 받아 왔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9월 검사를 종료하고 사용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암질이 지진에 취약할 수 있고 방사성물질이 지하수에 섞여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KINS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며 암질 역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은 사일로를 두껍게 설계해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하며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한 지 28년만에 완공된 경주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산업체 등에서 발생한 상대적으로 방사능이 적은 폐기물을 처분한다. 현재 경주 방폐장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양은 10만 드럼(1드럼=약 200리터). 여기에 포함되는 방사선량은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연료(사용후 핵연료) 한 다발을 10년 간 물속에서 식혔을 때 나오는 방사능 세기와 비슷하다.

김부미 기자 boomi@

FTA 외통위 통과, 힘 실린 朴대통령

G20 참석… 기업 투자 확대 유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오전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했다. 한국은 현재 방문국인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비준동의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로 박 대통령의 행보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알리고 국제적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을 투자 적격지로 홍보해 외국인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여야도 방문 전날인 13일 주최국 호주와의 F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했으며,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G20 개최국인 호주와의 관계에서도 보다 능동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호주 방문 일정에 맞춰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으나, 야당이 '신중론'을 내세우면서 무산됐다.

한편 박 대통령은 1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9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중일 정상의 전격회담 및 억류 미국인의 갑작스러운 석방 등 북한 측의 '통미봉남' 외교에 따른 고립 우려 속에 주도권 선점을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금주의 법안

'단통법 부작용'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 오전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104개로 집계됐다. 의원입법이 99개, 정부입법이 5개다.

우선 지난주에 이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후속법안이 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고 지원금 규모를 일반에 공시하기 7일 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단통법이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의 부담을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다.

김의중 기자 zerg@

구조조정 긴박성·재무상황 악화·해고회피 노력

3대 쟁점 모두 2심 판결 뒤집어

대법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한층 완화된 해고 기준 적용

2009년 해고당한 153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13일 2심 결론을 뒤집고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회사가 정리해고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해 판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2009년 6월8일자로 해고된 153명 노동자들의 일터복귀는 어렵게 됐다.

쌍용차는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명령을 신청한 뒤 165명을 해고했다. 이 중 153명은 "쌍용차가 회사의 어려움을 과장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이라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상고심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크게 3가지 쟁점에서 2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구조조정 긴박성 인정=재판부는 "2008년 경유가격 급등과 금융위기로 인해 쌍용차는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회사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주요 쟁점 비교

주요쟁점	2심 판단	대법원 판단
경영상 구조조정의 긴박한 필요성	계속적 · 구조적 경영위기로 볼 수 없고, 인원 감축 규모도 합리적이지 않았음	경영위기는 일시적 · 부분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인력 감축 규모는 경영자 판단이 존중돼야 하는 영역의 문제
재무건전성	회사가 2008년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을 부풀려 재무상황 악화를 과장했음	매출 수량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어도 합리성이 인정됨
해고 회피노력	무급휴직 조치 등이 정리해고 이후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동결, 순환휴직, 희망퇴직 등 조치를 실시했으므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봐야



◇쌍용차 재무상황 악화 과장 아니다=당초 노조는 2008년 회사측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장해 회계처리함으로써 해고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란 영업손실 등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장부가액과 차이를 손실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어떤 기계를 1000억원에 구입했지만, 매출 감소 등으로 그 기계를 가동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처분·잔존가액을 포함한 액수가 400억원에 불과하다면, 600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다. 2심 재판부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쌍용차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신차 출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손실을 과다계상한 혐의로 최형탁(57) 전 대표와 이유일(71) 현 대표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 인정=2심은 회사가 정리해고 당시 무급휴직 조치를 하지 않다가 정리해고 이후에야 시행한 점을 들어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급휴직 조치는 노사간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자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회사가 무급휴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좌영길 기자 jyg97@

대기업 中企업종 진출 비난일자
'바지사장' 내세워 영업하다 들통

직원에 청과 개인업자 행세 지시
횡령 혐의로 직원과 형사고소전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개인사업자 행세를 하다가 형사고소전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A그룹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다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그룹은 2004년부터 가격경쟁력을 높이려고 산지에서 직접 청과를 구매하기로 하고 산지 직거래팀 B(46)씨에게 회사와 무관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했다. 그룹차원에서 청과를 구매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한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A그룹은 B씨에게 가지급금, 선급금 형태로 208억원을 지급해 제주도 감귤과 안동사과를 구입한 뒤 회사에 공급하도록 했고 4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거래는 모두 법인 계좌가 아닌 B씨나 B씨의 처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 선과장 법인도 B씨의 처 명의로 설립했다. 그러나 선과장 생활을 청산하고 회사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B씨는 회사가 보상은커녕 새로운 청과산지를 개척하라는 지시만 하자 선과장과 통장 반환을 거부했다.

A그룹은 2011년 6월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사직처리했다. 1심은 B씨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통장에는 회사가 지급한 비용과 B씨가 노력해 취득한 이익이 섞여있고, 통장 잔액과 설비 반환을 거부한 것은 공로에 대한 보상이나 비용상환 등의 정산을 요구하는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익어가는 곶감… 흐뭇한 농심



겨울로 접어든다는 입동(立冬)이 지나면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요즘 명품 반건시 곶감 출하 준비가 한창이다. 13일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한 농가에서 연분홍빛으로 익어가는 곶감을 살펴보는 농민의 손길이 마지막 남은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대법 "가스公 파업 주도 노조간부 무죄"

"업무방해죄 처벌 못해"

대법원이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2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파업이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업으로 인해 실제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황모(47)씨와 최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을 받을 만큼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혼란을 일으켰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2심 재판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맡았던 황씨와 최씨는 2009년 11월 6일 가스공사 총파업을 지휘·독려하고 노조원 1200여명과 함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전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임금 단체교섭을 요구한 만큼 이는 정당한 파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수천억원대 가격담합' 농심·오뚜기 美서 소송 당해

라면 제조업체 농심과 오뚜기가 미국에서 가격 담합 혐의로 수천억 원대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이들 업체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현지 대형 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7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라면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집단소송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국내 라면제조 4개사가 2001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 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는 담합 가담 정도가 덜해 미국 소송에서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농심과 오뚜기는 당혹감을 내비쳤다. 농심 관계자는 "아직 미국 법원이 승인을 결정할 것이 '모션 투 디스미스(Motion to Dismiss)'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 본 후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뚜기 역시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이선애·김나은 기자 better68@



은행 서민금융 창구 늘린다

우리銀, 전담 영업점 두배로
신한銀, 방문 이동점포 늘려
농협銀, 거점점포 전국 확대

은행들이 지점 축소 속에서 서민금융 전담점포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민채널을 별도로 운영해 금융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서민금융 전담 영업점 및 창구를 기존 64개에서 116개로 대폭 확대했다.

전담창구는 서민금융 수요가 많은 성남 공단, 남대문시장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 영업점에 추가로 만들어진다. 상담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반 상담창구와 별도로 운영된다.

이광구 개인고객본부 부행장은 "평균 60개 내외의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우리은행을 보고 경쟁적으로 서민전담 영업점 확대에 동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역시 금융서비스 취약 지역 근로자 및 서민고객의 편리한 은행거래를 위해 이동점포(뱅버드)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서민금융거점점포인 희망금융플라자를 포함해 67개의 서민금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이동점포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서민금융 전담 점포에서는 금융소외 고객들의 대출지원과 더불어 KCB신용관리서비스 제공, 고용·복지 상담신청 대행, 서민금융나들목 상담·예약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NH농협은행 역시 지난 7월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를 38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거점점포·전담창구를 대전, 강원, 충북, 울산, 제주, 부산 등 각 지역에도 설치했다.

한편 서민금융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는 최근 부천시 원미구에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계층의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 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미소금융재단, 한국투자 저축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서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한 자리에 모은 것으로 이용자는 1회 방문만으로 상담→심사→지원(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금융권 서민금융 지원 현황

기관명	내용
금융위원회	부천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개소
NH농협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지방까지 확대 운영
신한	금융취약지역에 이동점포(뱅버드) 확대 운영
우리	서민금융 전담 영업점 116개로 확대 운영

※ 출처: 각 기관

생보협회 차기회장 후보 하마평 '시끌'

이수창, '수장마저 삼성출신' 지적
고영선, 현직 부회장 재직 걸림돌
신은철, 뒤늦게 출사표 다크호스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

김규복 생보협회 회장의 임기가 다음 달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 선출작업이 다음 주부터 이뤄진다. 특히 이번 협회장은 민간출신이 10년만에 선임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보협회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과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이다.

이 전 사장의 경우 1948년생으로 제일제당, 삼성중공업,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을 두루 거친 삼성맨이다. 특히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보험사 CEO를 지낸 기간만 12년에 달해 보험전문 경영인으로 불린다. 특히 이 전 사장은 삼성생명·화재 대표 시절 카리스마와 리더십, 친화력 등을 앞세워 조직을 잘 이끌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협회 수장 자리마저 삼성생명이 차지할 경우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는 삼성생명에 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 수장은 업계를 대변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가는 자리인데, 업계간 이해가 상충될때 특정 회사를 대변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력 후보자인 고영선 현 교보생명 부회장은 현직에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교보생명은 우리은행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회사를 떠나기 보단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고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화보협회 이사장을 임기 4개월을 남기고 교보생명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1년만에 또 다시 생보협회장으로 선출된다면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다른 한편에서는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이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다른 후보들보다 뒤늦게 출사표를 던졌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두루 거친 보험 전문가다. 신 전 부회장은 대한생명을 한화그룹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최종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생보협회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지만 민간 출신이 선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10년만에 민간출신이 협회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 하마평이 무성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형사 중심의 인물들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내분 홍역 딛고…안정 되찾는 KB

윤 회장 내정 후 비상경영위 순항…당분간 회장·행장 겸임

경영진 내분사태로 홍역을 앓은 KB금융이 윤종규(사진) 회장 내정자 선임 이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그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조직안정이다. 이를 위해 윤 내정자는 당분간 회장과 행장을 겸임키로 했다.

윤 내정자는 지난달 29일 이사회 이후 "조직을 빨리 추스르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 리딩뱅크 위상을 찾고자 당분간 행장과 회장을 겸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속적인 내부 승계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사 청탁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어 "쓸데없는 청탁을 하는 사람은 기록해 둘 것"이라며 "채널 갈등을 줄이면 (조직의) 결집력과 추진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 출신인 윤 내정자는 현재 업부 공백 없이 곧바로 비상경영위원회에 투입돼 지주 임원 및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핵심경영지표를 체크하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계좌이체 수수료 100원? '뱅카' 유료화 논란

이용자 확보 내년 3월까지만 무료
다음카카오 "수수료 은행서 정해"

"은행 모바일뱅킹으로 타행이체를 하면 무료인데, 뱅카(뱅크월렛카카오)는 수수료 100원을 받는다구요. 그렇다면 안 쓰겠죠"

14일 여의도 한 시중은행을 찾은 직장인 김선혜(37·서울 중랑구 면목동)씨는 이틀 전 출시한 뱅크월렛카카오(뱅카)로 자금이체를 할 경우 내년 4월 부터 1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카톡은행으로 불리는 뱅카의 이체수수료 부과 소식에 소비자들이 거부감을 나타냈다.

은행들이 현재 무료인 뱅카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음카카오에게 내는 플랫폼 사용료를 메우기 위해서다. 다음카카오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정성열씨는 '뱅카 계좌이체 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다' 며 "은행들로부터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전적으로 은행에서 정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까지는 이용자 확보 차원에서 무료지만 계속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게 은행의 입장이다.

자사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이용자들과의 차별도 문제다. 현재 시중은행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앱으로 타행 이체시 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뱅카는 5분의1 수준인 100원을 책정한 상태다. 은행들이 자신이 직접 개발한 앱을 이용하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외면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앱 이용자의 수수료(500원)를 인하할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 일부에서는 뱅카 수수료를 무료로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현재 모바일뱅킹 이용자 대부분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전용 통장, 급여이체 통장, 신용카드 결제 계좌 등은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뱅카 서비스에 참여한 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뱅킹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뱅카도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우람 기자 hura@

6대 시중은행 수수료 (단위: 원)

은행	창구이용	자동화기기 마감전	자동화기기 마감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RS이용시)	모바일뱅킹
국민	500	500	500	500	500	500
농협	500	400	700	500	500	500
신한	600	500	600	500	500	500
외환	600	500	600	500	500	500
우리	600	500	750	500	500	500
하나	600	500	600	500	500	500

※ 출처: 은행연합회



모뉴엘 사기대출, 수출입은행 직원 연루 의혹

대출담당 금품 수수 가능성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수은)의 직원이 금품을 받고 모뉴엘에 거액의 신용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수은은 모뉴엘에 히든챔피언이란 타이틀을 부여한 데 이어 여신 전체를 담보 없이 100% 신용만 믿고 빌려준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과 금융당국이 모뉴엘과 수은 대출 담당 직원의 계좌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직원 사이에 억대의 자금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모뉴엘의 6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 회사에 대출보증서를 발급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만큼 수은 직원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뉴엘의 경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의심할 수 있는 분식 재무제표로 은행권 대출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모뉴엘과 수은 직원 간 금품이 오고 가지 않았다면 거액의 신용대출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은의 모뉴엘에 대한 대출 잔액은 총 1135억원으로 가장 많다. 수은은 일부라도 담보를 잡은 다른 은행과 달리 전액 신용대출을 해준 탓에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지 기자 kimmj@



위 표지는 창간예비호 표지입니다.

제2인생 설계의 동반자 월간 〈브라보 마이라이프〉

창간예비호 맛보기

COVER STORY
인생 후반전을 좌우하는 6대 키워드
'해피 END'를 위한 '해피 AND'



BROVO LIFE
'브라보 마이라이프'를 부르는
봄여름가을겨울의 라이프 스타일

SPECIAL REPORT
1955년生 블루스, 두 번째 청춘이 시작된다



브라보가 만난 사람
SA 대표 강경식 전 부총리의 실버운동 "홀로 서서 함께 가자"

명사가 함께하는Book人Book
'국화꽃향기' 작가 김하인 〈이별 없는 세대〉에 살다

멋진인생
여성 아마추어 바이크 레이서 전규정씨

문화읽기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앤틱의 모든 것

어느 날 문득
70년대, 그 찬란했던 고고장의 추억

아침의 향기
아침에 열공하는 사람들 … 배움이 있는 한 청춘이다

신중년 富테크
자연과 문화가 '어울렁 더울렁' 친환경 주택에 살어리랏다

가지 않은 길
찰칵 찰칵, 사진 찍기 삼매경에 빠진 강권중 전 국토부 국장

나의 어머니
박윤초 명창, 어머니 김소희의 삶을 말하다

세컨드 라이프
런웨이에 선 시니어 모델들의 열정

머니@테크
6070 '지수형ELS'로 유동성 확보, 3040 '연금저축계좌'

실패하지 않는 창업
한집 걸러 한집 '먹는 장사' 스토리 담아야 '남는 장사'

투어
비빔밥처럼 다양한 멋과 멋이 어우러진 그곳, 전주 한옥마을

김인철의 야생화 산책
사무치게 그리운 임을 닮은 꽃, 둥근잎꿩의비름

블루슈머
평범하게, 비범하게 꽃중년의 '놈코어'

헬스
VVIP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차움'

브라보 MY 라이프 월간지를 2015년 1월에 창간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02)799-2684



KB 국민은행 KB 국민카드 KB 투자증권
KB 생명 KB 자산운용 KB 캐피탈
KB 저축은행 KB 부동산신탁 KB 인베스트먼트
KB 신용정보 KB 데이타시스템

KB 금융그룹

美지엠, 한국에 신규 생산물량 배정 '0'

통상임금 확대 등 '인건비 상승' 우려에 배정 안해
군산공장 크루즈 후속모델 생산도 불투명해져
수개월내 희망퇴직 예고…비용절감 프로젝트도

한국지엠이 모회사인 제네럴모터스(GM)로부터 신규 생산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매년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세계 16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 생산물량을 배정한다.

14일 자동차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GM의 올해 신규 생산물량 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GM은 한국지엠의 통상임금 확대와 같은 임금상승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도의 경우 한국의 반만 투입해도 차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대당 생산비용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지엠의 크루즈 후속 모델 생산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샤 사장은 올해 2월 군산시에 "군산공장에서 크루즈 후속 모델을 지속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크루즈 후속 모델 생산은 아직 GM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한국지엠의 생산성이 지속 하락할 경우 2017년 크루즈 후속 모델 생산 이전에 생산기지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크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군산공장에서 신형 크루즈를 생산하는 것은 정해졌지만, 시기와 물량만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의 주요 생산계획

GM KOREA

부평공장
- 캡티바 부분변경 모델
- 아베오 부분변경 모델
- 말리부 후속모델

군산공장
- 크루즈 후속모델 생산 추진 중

창원공장
- 스파크 후속모델



그러나 한국지엠은 비용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에 연이어 나서고 있어, 신규 물량 배정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방증했다.

우선 주간연속 2교대제로 운영되는 군산공장은 비용절감을 위해 1교대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군산공장이 1교대제로 전환되면 비정규직 600여명과 정규직 2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또 부평공장은 1, 2공장의 통합이 제기되고 있다. 말리부와 알페온을 생산하는 부평공장은 내년 임팔라가 GM에서 수입 판매되면 1, 2공장이 합쳐질 전망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사무직 팀장과 임원급이 대상이다. 한국지엠은 2012년, 2014년 초에 각각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 초에 희망 퇴직을 실시한 뒤 호샤 사장은 "내년까지 추가 희망퇴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를 번복하게 됐다.

내년에는 대대적인 비용절감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한국지엠은 최근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액셀러레이트 프로젝트'를 내년 핵심 사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 감소와 함께 임원급의 감원도 점쳐지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삼성 門 두드리는 글로벌 CEO

HP 멕 휘트먼 서초사옥 찾아
메모리반도체 협력방안 논의
MS·페북 등 5개월새 4명이나
삼성전자와 파트너십 돈독히



멕 휘트먼(사진)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13일 삼성전자를 찾아 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애초 관심을 모았던 휘트먼 CEO와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전날 스위스 명품 시계업체들과 '기어S' 등 스마트워치의 디자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출국했다.

휘트먼 CEO는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권오현 부회장을 만나 메모리반도체인 D램, 낸드플래시 부문 사업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HP는 PC, 프린터, 클라우드 서버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는다. 휘트먼 CEO는 인터넷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삼성전자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글로벌 CEO들은 부쩍 늘고 있다. 지난 7월 언더아머의 케빈 프랭크 CEO를 시작으로 MS 사티아 나델라,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코닝 웬델 윅스 등 최근 5개월간 알려진 것만 4명의 글로벌 CEO들이 방한해 삼성전자를 찾았다. 업계는 본격적인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앞두고 스마트폰 등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기술을 확보한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미스터피자 '동남아 진격'

MPK-예취그룹 합작법인 설립
말레이·인니·필리핀 동시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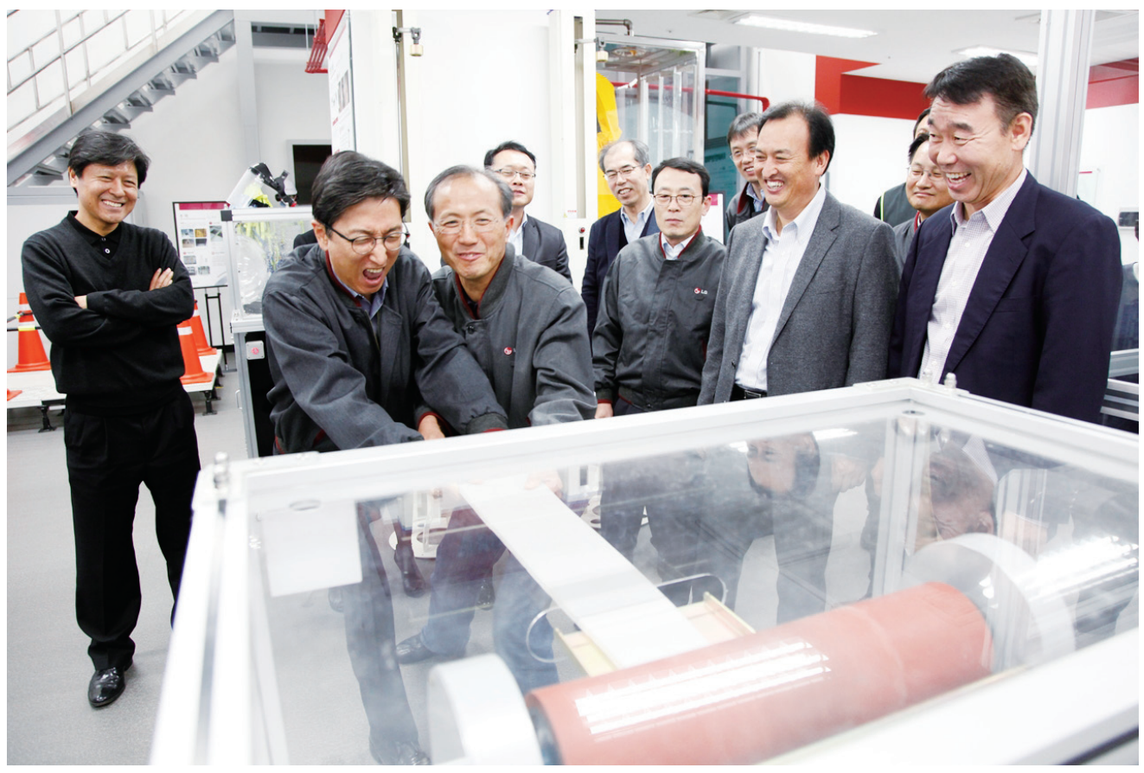
정우현〈사진〉 MPK그룹 회장이 피자로 세계 정복에 나섰다. 미스터피자는 지난달 필리핀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 예취(YECHIU)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우현 MPK그룹 회장과 황청성 예취그룹 회장은 13일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 3개국을 총괄하는 합작법인 설립에 동의했다. MPK그룹은 합작법인을 6개월 내 말레이시아에 설립하고 이곳을 동남아시아 동남부권의 전진기지로 삼아 내년 상반기중 각 나라에 첫 점포를 열 계획이다. 2017년까지 인도네시아에 50개, 말레이시아에 30개, 싱가포르에 20개 등 100개의 매장 개설이 목표다.

정 회장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가 중요하다"면서 "예취그룹은 이런 점에서 자본과 네트워크가 우수하고 사업 역량 또한 뛰어난 최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LG디스플레이, 최고경영진 20여명 안전교육



LG디스플레이 최고경영진이 안전교육을 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13일 CTO(최고기술책임자) 여상덕 부사장과 CFO(최고재무책임자) 김상돈 전무 등 경영진 20여명이 파주사업장 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한상범 사장과 CPO(최고생산책임자) 정철동 부사장이 안전체험관 개관 행사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9월 파주와 구미에 안전체험관을 열고 △응급처치 △창상 △추락 △협착 △화학물질 △화재 등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12가지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예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블랙베리 '모바일 보안' 기술 제휴

삼성전자와 블랙베리가 모바일 보안 부문에서 제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랙베리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글로벌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보안 소프트웨어인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12(BES12)'를 공개하고,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고객 공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사는 삼성의 보안 플랫폼 '녹스(Knox)'와 BES12를 통해 공동으로 매출을 창출할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블랙베리는 '원조 스마트폰' 기업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삼성과 애플 등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블랙베리는 세계 최대 휴대폰업체인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BES12 판매 확대는 물론 고객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랙베리는 BES12를 주축으로 삼아 매출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내년에는 수익성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삼성 역시 보안 부문에서 블랙베리가 보유한 명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민태성 기자 tsmin@

기아차 '하이브리드 SUV' 나온다

'DE' 2016년 출시 목표… '스포티지'보다 작은 소형 SUV

기아자동차가 하이브리드카 전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선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16년 출시를 목표로 SUV인 'DE(프로젝트명)'를 개발 중이다. 이 차는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스포티지보다 작은 소형 SUV다.

기아차는 DE 하이브리드카를 먼저 출시한 뒤 향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PHEV는 충전된 배터리로 주행하다가 전기가 떨어지면 석유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차량이다.

DE는 기아차가 2013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인 콘셉트카 '니로'를 계승해 개발된다. 니로의 전면은 호랑이코 그릴과 넓은 헤드램프가 특징이다. 이 차의 차문은 위로 열리는 버터플라이 도어를 적용했다. 니로는 1.6ℓ 터보 GDi 감마 엔진과 전기 모터를 장착했다. 변속기는 7속 더블클러치다. DE 역시 니로 콘셉트카의 내외관을 상당 부분 따를 전망이다.

기아차가 SUV 부문에서 하이브리드카를 선보이면 토요타 프리우스와의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20년까지 현재 7개인 친환경차 모델을 22개로 확대하겠다는 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내년 준중형급에서 첫 하이브리드 전용차를 선보인다. 처음 개발하는 전용 모델이지만 프리우스의 연비(21㎞/ℓ)를 뛰어넘을 계획이다. 이어 승용차에 한정됐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SUV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아차의 DE 프로젝트도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확대 계획 일환으로 수행된다.



기아자동차가 2013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선보인 콘셉트카 '니로' 사진제공 기아자동차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에스원 '안심폰' 누적판매 6만대 돌파

출시 1년2개월 만에… 미아찾기 사례 알려지며 판매량 급증

최근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심폰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안서비스 업체인 에스원은 지난해 9월 출시한 '안심폰 서비스'가 출시 1년 2개월만에 누적 판매대수 6만대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에스원의 안심폰 서비스를 통해 길을 잃은 자녀나 위기에 처한 노부모를 구출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최근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에스원 관계자는 "안심폰에는 에스원 관제센터와 직접 연동되는 보안관제 프로토콜이 탑재, 위급상황시 버튼을 누르면 위치정보가 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자동 통보되고 가까운 세콤 요원이 출동하는 등 신속한 서비스로 호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에스원 안심폰은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술과 에스원의 관제 노하우가 결합한 상품으로, 안전에 취약한 어린 자녀와 여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노년층이 '비상벨'처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도 위치확인 기능을 통해 현재 위치와 신변에 대한 정보, 어떠한 상황인지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과징금 수준은 매출액의 4%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불법의 수준에 비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LG유플러스 등이 모두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관련 매출액의 4%로 매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아직 형사고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통 3사와 더불어 일선 유통·판매점에도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가중액 50%가 더해진 것이다. 추가 위반시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300만원(2회), 600만원(3회), 1000만원(4회 이상) 순으로 증액된다.

방통위는 최대한 빨리 불법보조금 관련 시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통 3사 제재 안건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사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이달 안에 제재 안건이 전체회의에 부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제 기자 psj@

연어캔 전쟁



연어캔 시장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다. 동원f&b가 최근 알래스카 연어 어획회사에 20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이번엔 대형할인점 이마트가 CJ·사조·동원 등 제조회사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알래스카 연어캔'을 출시했다. 알래스카 청정해역에서 잡은 자연산 핑크연어로 만든 제품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 동결 공법을 적용했다. 오뚜기가 제품을 납품하고 거기에 이마트의 자체브랜드를 붙였다. PB제품인 만큼 가격은 150g짜리 3캔에 6980원으로 시중 제품 대비 약 20% 저렴하다.

올 시장 규모 2600억원
CJ·사조·동원 경쟁 치열
이마트도 'PB상품' 가세

이마트가 연어캔 시장에 본격 뛰어든 이유는 시장 규모가 해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연어캔 시장 규모를 2600억원으로 추산하고 매년 50% 이상씩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의 올해 연어캔 매출은 약 320억원으로 지난해 83억원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참치캔 1위 동원의 최근 행보를 봤을 때 수산물 통조림 시장은 참치에서 연어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시장 장벽이 아직 참치만큼 높지 않아 이마트의 PB제품도 승산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제주도에 또로·로로 보러오세요"

〈금호타이어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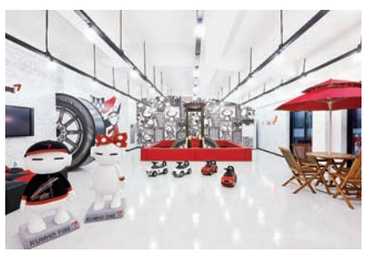
금호타이어 '엘리펀시아'에 홍보관 개장… '캐릭터 마케팅' 강화

금호타이어가 캐릭터를 활용한 인지도 높이기에 나선다.

금호타이어는 제주에 위치한 신개념 테마파크인 '엘리펀시아'에 금호타이어 홍보관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5일 오픈 예정인 엘리펀시아는 미국 폭스사의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키즈 카페와 움직이는 동물 모형을 전시한 동물테마파크, 기업 홍보관 등으로 조성된다. 엘리펀시아 내 기업 홍보관은 금호타이어가 유일하다. 금호타이어는 캐릭터인 '또로'와 '로로'를 활용한 인테리어로 친근한 분위기와 타이어의 특성을 살린 구조물을 배치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친근한 브랜드가 되기 위해 '캐릭터 마케팅' 활동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타이어를 은유적으로 형상화한 캐릭터 '또로'는 2011년부터 TV광고 및 CGV 극장 광고(비상대피도 광고)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국내 최대 직업테마 놀이 공간인 한국잡월드 직업체험관에서는 전시 부스에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월드클래스를 향해 ⑪ 김대연 윈스 대표

스나이퍼IPS·디도스 차단시스템 1위 탄탄한 기술로… 깐깐한 日 시장 진출

'경쟁사보다 반발짝 먼저' 시장 선도
품질테스트 후 검증된 제품만 시판
'기술' '안정' 요구하는 하이엔드 견인
작년 NTT도코모 수출액 120억원
"엔저 극복 위해 내년부터 동남아로"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죠."

김대연 윈스 대표가 꺼낸 의미심장한 한마디다. 1990년대 후반 벤처붐이 일면서 우후죽순 생겼던 정보보안 업체들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윈스는 지금까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현재 국가대표 정보보안 업체의 위치까지 올라간 윈스의 저력에 대한 김 대표의 자부심이다.

지난 12일 경기도 판교 본사에서 만난 김 대표는 조심스러웠지만 자신감이 넘쳤다.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살아남은 만큼, 고객들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기술력은 국내에서도 윈스가 우위에 있다는 평가다.

김 대표는 "윈스는 네트워크 보안에 강점을 지닌 정보보안 전문업체"라면서 "주력 솔루션은 침입방지시스템(IPS)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60% 정도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 특성상 시장 수요보다 반발짝 늦을 수밖에 없지만, 경쟁사보다는 반발짝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윈스의 경쟁력"이라고 언급했다.

1996년 설립된 윈스는 2000년 국내 정보보안 산업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스나이퍼(SNIPER)'를 출시한 회사다. 2003년엔 코스닥에 상장되기도 했다. 윈스는 스나이퍼 IPS를 비롯해 디도스(DDoS) 차단시스템까지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네트워크 정보보안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기술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하이엔드(High-end) 시장을 중심으로 고부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쟁력엔 윈스의 '꼼꼼한' 기술력이 근본이 됐다. 김 대표는 "국내 동종업계 제품들은 물론, 글로벌 브랜드 제품과 함께 '벤치마킹테스팅(BMT)'을 수개월씩 진행한다"며 "경쟁사 제품과 품질 테스트를 진행한 후 검증된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정보보안 업계에선 힘든 해외진출까지 노렸다. 국내 1위에 그치지 않고 일본시장에 10여년간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 2011년 일본 최대 이동통신회사인 NTT도코모에 스마트폰(WCDMA)망 IPS(10G)를 첫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방화벽을 제외한다면 일본 진출은 국내 정보보안 업계 중 유일하다. 2010년 1억원이었던 윈스의 수출액도 지난해 120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대표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정보보안 업종은 서비스와 묶여 있어 수출이 쉽지 않다"며 "서비스, 판매 등 우선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는데다, 국내 보안기업들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업체들이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엔 자국산 제품이 없어 그래도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 같이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사실 일본 진출은 윈스의 간절함이 큰 영향을 줬다. 윈스 이소진 과장은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현지에 파견을 보낼 기술자 등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하지만 윈스는 임직원 일부를 파견보내며 진정성을 보였고, 결국 NTT도코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정보보안 업계에서 드문 해외시장 공략 성과로 윈스는 중소기업청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도 선정됐다. 해외에서 자신감을 얻은 김 대표는 이제 일본 이후의 시장도 바라보고 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시장은 미국산 제품이 휩쓸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해외시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시장을 제외하고는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3년간처럼 일본시장에선 기존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주력을 옮겨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엔저 현상으로 인한 일본시장 수익 하락분을 동남아 지역에서 메우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꾸준히 두드리고 있고,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활발한 해외시장 공략에도 윈스의 최근 실적은 다소 좋지 않다. 엔저 현상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올해 매출 목표도 지난해의 724억원보다 낮은 7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를 내년 이후를 위한 재정비의 시기로 보내겠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보안업계 '격동의 시기'를 겪었던 김 대표는 현재 상황을 그리 비관하지는 않는다. 많은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윈스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며 "많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경영에 나섰지만 윈스는 ISP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R&D 능력을 키우며 내실을 키워왔던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보보안 업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에 대해선 '쓴소리'를 건넸다. 과거 방화벽 분야의 중소업체들이 삼성그룹 계열인 정보 보안업체 시큐아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졌던 사례가 있어서다. 윈스 역시 시큐아이와 명예훼손, 저작권법 소송 등에 휘말린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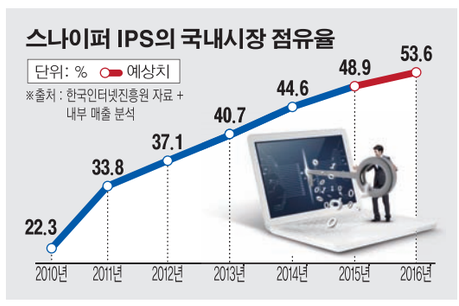
김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대기업 계열과 일반 중소기업들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가 없다"며 "SI분야는 대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는데 정보보안 시장에도 그런 부분이 적용됐으면 좋겠고, 안 되더라도 대기업 측에서 자제를 해야 하는 게 상도의 차원에서 맞다"고 지적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김대연 윈스 대표가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해외시장 공략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경쟁우위 비결은 'R&D 투자'

- 연구인력 111명 전체 직원 33%
- 연구개발에 63억… 매출의 9%
- 기술특허 등록·출원 등 63건



윈스는 글로벌 기업들보다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윈스는 R&D를 통해 개발된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제품군에 탑재해 인터넷 보안서비스 용도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기술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제품군의 성능 향상과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윈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64억원의 R&D 투자를 집행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은 8.9%로 꾸준히 전체 투자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연구인력도 2011년 63명, 2012년 101명, 지난해 111명 등으로 매년 확대하고 있다. 전체 상시 종업원수 대비 기술개발 인력 비중도 32.5%에 달한다. 기술특허 역시 등록·출원, 실용신안 등을 포함해 총 63건에 이른다.

회사 관계자는 "자체적인 R&D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개발사업 참여와 개발용역을 통한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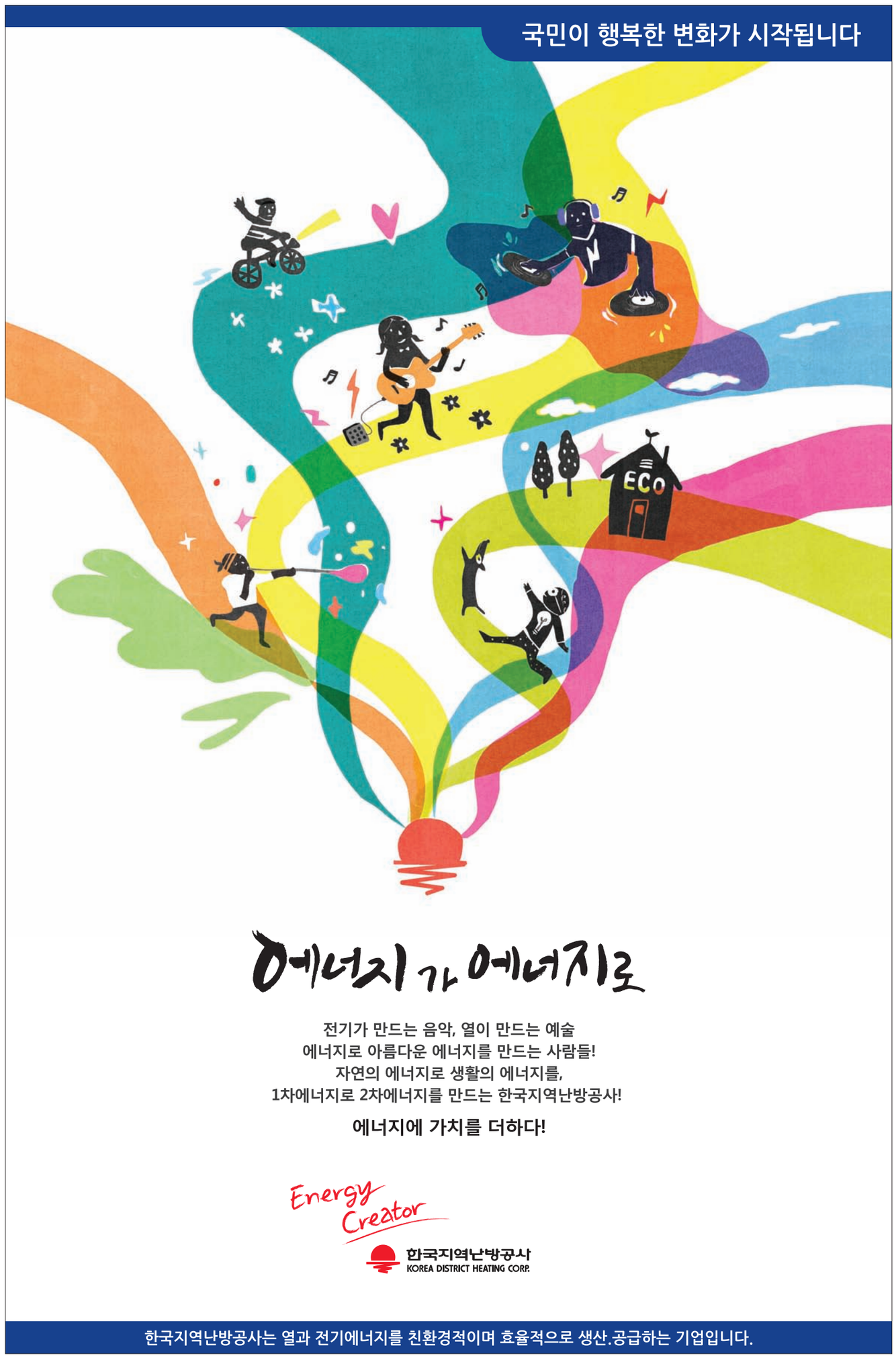
이 같은 기술력의 산물로 꼽히는 것은 윈스의 주력 제품인 '스나이퍼 침입방지시스템(IPS)'이다.

스나이퍼 IPS는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침입 행위를 실시간 탐지·분석한 후 비정상으로 판단된 패킷을 차단하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다. 현재 40Gbps의 대용량 인터넷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제품까지 출시돼 인터넷 진화와 스마트 환경의 정보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윈스는 향후 100Gbps 침입방지 시스템 개발도 착수할 계획이다.

윈스의 스나이퍼 IPS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제품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윈스에 따르면 스나이퍼 IPS의 오는 2016년 국내 시장점유율은 53.6%로 전망된다. 2010년 22.3% 점유율에 비해 무려 31.3%포인트가 늘어난 규모다.

또한 윈스는 스마트폰 보급 급증과 향후 사물인터넷(IoT)시대 확대로 네트워크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보안제품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트래픽 폭증에 따라 네트워크 규모는 1Gbps에서 10Gbps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40Gbps와 100Gbps까지 급속히 진화할 것으로 윈스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윈스는 고성능 제품 개발과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기능 개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

공동기획 beyond leading technology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황새' 쫓던 트위터, '정크본드'로 추락

S&P, 9월 발행한 전환사채 '투자부적격' 등급 매겨
"매출둔화 상황서 공격적 M&A는 현금흐름 부정적"

최근 성장 우려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트위터가 또 한 번의 굴욕을 겪는 신세가 됐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트위터의 회사채에 대해 투자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 충격으로 이날 회사 주가는 6% 가까이 급락했다. 이에 올들어 하락폭이 34%로 커졌다.

S&P는 이날 트위터가 지난 9월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부적격(정크)등급에 속하는 'BB-'를 매겼다. 이는 투자적격 등급보다 3단계나 낮은 것은 물론 구글(AA)이나 야후(BB+) IBM(AA-)보다 낮은 등급이다. S&P는 이날 트위터 채권에 분명한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제시해 당분간 이 등급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위터는 지난 9월 18억 달러(약 1조 97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인수·합병(M&A) 등 사업확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장기성장 계획은 오히려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전환사채
채권으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S&P는 "매출 성장 부분에서 더 둔화를 겪거나 현금유동성을 해치는 상당 규모의 M&A가 진행된다면 투자 등급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추가 강등을 경고하기도 했다. 앤디 리우 S&P 신용부문 애널리스트는 "트위터가 성장을 위해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2016년까지 현금흐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분기 회사의 월간 사용자 증가율은 5%였다. 이러한 성장속도는 페이스북과 같지만 전체 이용자 수를 놓고 보면 트위터가 한참 밑이기 때문에 트위터 성장둔화 우려를 키웠다. 트위터의 지난 3분기 월간 사용자 수는 2억8000만명이지만 같은 기간 페이스북은 11억명을 넘었다.

이와 관련 S&P는 트위터가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수입원을 확대하고 신제품 출시로 수익성을 개선한다면 등급 개선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우려에도 트위터는 자사의 성장 전망에 낙관적이다. 앤서니 노토 트위터 신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향후 10년 안에 연간 매출이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매출 전망(14억 달러)의 10배를 웃도는 것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버핏, 이번엔 '배터리' 충전

버크셔해서웨이, P&G그룹 '듀라셀' 사업 인수
주식 스왑방식 활용…최대 10억달러 절세효과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사진〉이 배터리사업에 진출했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가 프록터앤드갬블(P&G)의 듀라셀 배터리사업을 인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크셔는 듀라셀 인수를 위해 자사가 보유한 P&G 주식을 넘기기로 했다. 버크셔는 47억 달러(약 5조1500억원) 규모의 P&G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015년 하반기에 듀라셀이 17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로 버크셔가 부담할 인수액은 30억 달러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듀라셀 인수를 통해 버핏이 다시 한번 투자업계 거물로서의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버크셔는 P&G에 주식을 넘기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야후파이낸스는 버크셔가 듀라셀 인수와 관련해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버크셔는 지난 2008년 1억주의 P&G 주식을 매입했으며, 이후 P&G의 실적 부진과 함께 보유 지분을 줄여왔다.

버핏 평전을 썼던 앤드루 킬패트릭은 듀라셀 인수에 대해 "현명한 세금 전략으로 엄청난 거래를 했다"며 "멋진 금융 거래"라고 말했다. 버핏은 에너지업체 필립스66과 미디어기업 그레이엄홀딩스와의 거래에서도 주식 스왑 방식을 사용하는 수완을 보인 바 있다.

버핏 역시 이번 거래에 대한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성명을 통해 "나는 소비자는 물론 P&G의 오랜 투자자로서 듀라셀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듀라셀은 최고의 품질을 갖춘 글로벌 선두 브랜드"라고 평가했다.

P&G는 최근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브랜드 매각에 나서는 등 쇄신에 집중하고 있다. A.G. 래플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듀라셀의 분사 또는 매각 계획을 밝혔다. 듀라셀은 P&G 매출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8월에는 실적이 좋은 70~80개 브랜드만 남기고, 최대 100개 브랜드를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래플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율과 같은 외부 요인의 도전을 받고 있다"며 "생산성 개선과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버크셔해서웨이의 주가는 0.55% 오른 반면, P&G는 0.98% 하락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MS, 유가하락 수혜 시총 세계 2위 올라

총 448조원… '엑슨모빌' 제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엑슨모빌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2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MS 주가는 13일(현지시간) 전일 대비 1.7% 오른 49.61달러로 마감해 시총이 4089억 달러(약 448조원)에 달했다.

반면 엑슨모빌 주가는 0.8% 하락해 시총이 4008억 달러로 축소돼 서로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요구에 대한 회원국들의 거절, 셰일혁명에 따른 미국 산유량 급증 등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엑슨모빌 주가도 올해 6.5% 빠졌다.

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2월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2.97달러(3.9%) 급락한 배럴당 74.21달러로, 75달러 선이 깨지면서 지난 2010년 9월 2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증시 S&P500지수 업종 가운데 컴퓨터·소프트웨어는 올 들어 17% 올라 헬스케어와 전력 다음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특히 MS 주가는 올들어 33% 올라 시총이 1000억 달러 가까이 급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가 회생을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펼친 것이 투자자들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나델라 CEO는 지난 2월 취임 이후 1만8000명을 감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크리스마스트리 '화룡점정'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록펠러 센터에 세워진 85피트(약 25.90m) 높이의 크리스마스트리 꼭대기에 '스와로브스키 별'을 근로자들이 설치하고 있다. 이 별은 스위스 크리스털 제품 제작판매 업체인 스와로브스키에서 2만5000개의 크리스털로 제작해 무게는 약 249.47kg에 달한다. 뉴욕/AP연합뉴스

아마존 vs 출판사 '수익분쟁' 마침표

아셰트에 전자책 가격결정권 주고 인센티브도 지급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마존과 프랑스 출판사 아셰트가 마침내 화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아마존이 아셰트와 향후 '수년간' 종이책 및 전자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약은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계약에 명시된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극적으로 체결된 이번 계약을 통해 아셰트는 앞으로 전자책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아마존은 아셰트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셰트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피에츠는 "(아마존과의 이번 계약은) 출판사와 공급사 관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아셰트에 소속된 작가들의 전자책 로열티는 이번에 맺은 계약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마존과 아셰트는 수익·수수료 배분 문제 및 가격 결정권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다.

서지희 기자 jhsseo@

비트코인, '대중화' 가능한 이유는

"대기업 6만곳 이상 사용 금융취약국서 역할 톡톡"

최근 5년간 급등 투기 우려속
올해 다시 모멘텀 기대 늘어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곧 대중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트코인이 최근 놀라울 정도로 신용을 회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간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금융거래에서의 통화보다 투자 시장에서 투기의 목적으로 더 사용돼 많은 우려를 낳았다. 기존 통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난 5년간 최고 1000달러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기성이 부각되고 마약과 무기 밀거래 등에 악용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중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이 비트코인의 투기성을 우려,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80%를 차지하던 일본 비트코인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지난 4월 돌연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올해 비트코인은 다시 시장에 파급력을 가질만한 충분한 모멘텀을 재형성했다는 평가다. 6만개가 넘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으며 지난 2분기 비트코인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전기대비 28% 급증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도 충분하다고 마켓워치는 설명했다. 우선 비트코인이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지역에서 거래수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이라면 국가 간 송금은 금융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라도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비트코인의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아마존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직구족' 사이에서 유명한 컴퓨터 전문 쇼핑몰 뉴에그(Newegg)와 타이거디렉트 등이 비트코인을 쓰기로 했다. 이들 대기업의 수용은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설명했다.

또한 일부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상당수 국가가 여전히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어 앞으로 비트코인의 부정적 인식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내다봤다.

여기에 최근 3000만 달러(약 320억원) 투자금을 유치한 미국 비트코인 지갑서비스 블록체인이 서비스 혁신을 거듭하고 있어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글로벌 리포트

이슬람국가, 자체화폐 발행 계획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자체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13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IS는 이날 성명에서 "시리아와 이라크 점령지역에서 금과 은, 동으로 경화를 주조해 유통시킬 예정"이라며 "미국 달러화에 맞선 자체 화폐 발행이 무슬림을 착취와 경제적 억압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화폐의 명칭은 디나르로 초기 이슬람 국가에서 쓰였던 옛날 화폐 이름을 되살린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설명했다. 금화는 디나르, 은화는 디르함으로 불린다.

이는 IS의 칼리프 주도 신정국가 체제를 굳히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자체 화폐 사진을 살펴보면 한쪽 면에 '이슬람 국가'와 '선지자를 따르는 칼리프 영토'라는 문구와 함께 액면가가 새겨지며 각 화폐마다 사원과 초승달, 종려나무 문양 등 이슬람의 다양한 상징이 들어간다.

"실내 공기오염 年430만명 사망"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대기품질 지침:가정용 연료 연소' 보고서에서 실내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13일 중국차이신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매년 전 세계 사망자의 8분의 1인 700만명이 실내외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며 그 가운데 '실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43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사망원인은 중풍(34%), 혈기 결핍 심장병(26%), 만성폐결핵(22%), 아동기에 나타나는 폐렴(12%), 폐암(6%)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WHO는 "약 30억명의 세계인구가 석탄, 나무, 화석연료 등에 의지하여 난방과 취사를 하고 조명기구 등을 사용하면서 불완전한 연소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정상회담에서 피바디 에너지 회장 겸 CEO인 그레고리 보이스는 "에너지 빈곤을 완화하고 저비용 에너지를 창출해 배기가스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전 세계 70억 인구의 반 이상이 적절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 취사와 난방을 위해 원시적인 실내 난방을 사용한다"며 "이 때문에 발생된 연기로 질병을 얻거나 생명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美, 송유관 법안 의회통과 가능성

미국 의회에 장기간 계류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간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해 내달 6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 루이지애나주 메리 랜드류 연방 상원의원(민주당)이 12일(현지시간) 선거 승리를 위해 더이상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14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가결되고 이르면 18일 상원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된다면 양측간 갈등이 노골화되면서 정국 경색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 2700㎞를 잇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은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과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당시 법안에 서명했으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2012년 1월 이를 무효화했다.

공화당과 일부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이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캐나다 역시 계속 늘어나는 오일샌드를 수출하려면 이 송유관이 절실한 상황이다.



〈봄〉 박용우, 김서형, 이유영, 그리고 〈26년〉 조근현 감독과 함께하는 GV 이벤트 진행! 지금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세요!

11월 10일 소설 [봄] 출간!
영화 〈봄〉 페이스북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소설 [봄]을 선물로 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latespring.2014

〈봄〉 OST 전격 출시!! 11월 12일,
벅스 • 멜론 • 음원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배우 김서형이 직접 부른 OST 뮤직비디오,
지금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S 캔들과 함께하는 〈봄〉 시사 이벤트!
지금 http://love-c.kr/ 에서 확인하세요.

한방 발효 울트라 앰플과 함께하는 〈봄〉 시사 이벤트!
지금 http://www.ss-501.co.kr/wp/
에서 확인하세요.

봄 – late spring

11월 20일 대개봉!



공병호의 독서산책

데이비드 펠드먼 '슈퍼서바이버'

누구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피해가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데이비드 펠드먼과 리 대니얼 크라비츠의 '슈퍼서바이버'는 '심리적 외상'을 겪은 이후 '외상 후 성장'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저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수많은 상처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는지를 다룬다.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은 하나 같이 심리적 외상을 겪은 이후 긍정적인 의미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저자는 심리적 외상을 겪은 후 자신의 삶에 대변혁을 일으킨 사람들을 '슈퍼서바이버'라 부른다. 그들은 고통을 참고 견디는 와중에도 이 고통을 바꾸고 초월한다. 그들은 말한다, 세상의 시련이란 흐트러진 인생의 조각을 다시 맞추기 위한 대격동의 사건일 뿐이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보다도 더한 사건을 겪는 와중에 내적 강인함이 생긴 사람들이다. 슈퍼서바이버는 자신의 삶의 행로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얻은 심리적 이득을 가리켜 우리는 '외상 후 성장'이라고 말한다.

네덜란드의 장거리 수영 선수 마르틴 반 데르 바이덴의 사례는 막연한 낙관주의와 긍정론이 자주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이 운동을 잘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언젠가 올림픽을 제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마르틴 역시 주변 사람들의 낙관론을 믿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저는 제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언젠가 올림픽 같은 무대에서 경쟁하고 메달을 딸 가능성이란 그야말로 희박한 것이었고 완전히 헛된 기대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시련·역경
흐트러진 인생의 조각 맞추기
심리적 외상 후 성장한 사람들
내 삶의 대변혁 기회로 만들어

그는 암을 치유하고 3년 만에 수영장으로 돌아온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데 성공한다. 마르틴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현실을 인정하고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도전한다. 예를 들어, 그는 냉철하게 분석한 후 작은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을 무사히 넘기기 위한 목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목표, 다음 단계 화학요법을 견뎌내기 위한 목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생명을 구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헤쳐나가기 위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한다. 그는 병이 걸리기 전에는 세계 챔피언을 노렸지만 병을 앓고 난 이후에는 현실적인 목표 즉, 작은 대회에서 힘껏 최선을 다해 수영을 하기 시작하였다.

마르틴 사례는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슈퍼서바이버'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를 전한다. 이들은 막연한 낙관론이나 긍정론이 아니라 '현실에 근거한 희망'을 근거해서 삶을 이끈다. '현실에 근거한 희망'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이 토대 위에 선택을 하나씩 쌓아올리는 식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방법이다. 슈퍼서바이버들은 '모든 일이 다 잘될 거야'라고 위로하는 허구에서 벗어나 용기를 내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실천하는 데 익숙하다.

슈퍼서바이버는 '목표 이탈'도 활용한다. 역경 전에 자신이 가졌던 대담한 목표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어떤 목표를 포기함으로써 이전에 간과했던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이 책이 소개하는 역경 극복의 경험과 방법들은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지혜 그리고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正論

스포츠 산업의 새 패러다임



박 성 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교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신규산업들이 등장하게 됐다.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역시 소득수준의 향상과 여가를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발전돼 왔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발전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조류였다.

그동안 스포츠산업은 뚜렷한 비전에 근거한 발전보다 우리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며 자연스레 변화해왔다는 설명이 적합하다. 국가주도의 수출 지향적 성장이 주류였던 70년대 국내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의류·신발 등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80년대 초 프로스포츠가 등장하면서 산업으로서의 구색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엘리트스포츠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발전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현대적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각종 세계대회에서 국가대표팀이 호성적을 거두고,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국내 개최를 연이어 성공시킴으로써 스포츠의 대중화와 함께 스포츠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리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의 대중화나 스포츠의 대중화를 촉진시키는 기반산업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스포츠의 대중화란 스포츠가 대중에게 보급되고 활성화되는 과정과 결과다. 이는 소수에서 다수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중과 그들의 소비·문화의 거대화·체계화를 고려할 때 자연스레 산업화를 의미한다.

산업화는 단순히 특정 분야의 비즈니스화나 상업화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사회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미친 근본적인 변화의 시발점이자, 시스템들의 선진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엘빈 토플러(1989)가 주장한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은 우리사회가 농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가능케 했던 혁신적 변화의 시발점이었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대중화란, 그것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소비층의 대중화와, 이러한 소비층들을 둘러싼 제도·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산업화를 의미한다.

스포츠의 산업화란 단순히 상업적 관점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판매하는 개념이 아니다. 산업화의 핵심은 소비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상업화가 공급자 중심의 가치관이라면, 산업화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와 소비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가치관일 것이다. 굳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프로슈머를 언급하지 않아도,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매우 타당한 이성적 추론일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스포츠를 향유하는 소비자로서의 대중의 부각과, 이들에 의해 견인되는 산업의 발전이다.

스포츠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적 결정체라는 점이다. 스포츠산업 분류법에 따르면 스포츠산업은 총 45개의 하위분야로 구성돼 있을 만큼 산업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매우 크다. 동시에 각각의 하위분야가 통합돼 스포츠산업을 구성할 만큼, 분야 간 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ICT가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첨단산업이자, 정부가 과거 정책적으로 육성했던 용품업과 같은 전통적 산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은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독특한 산업이며, 공급자 중심의 산업이자 소비자 중심의 '착한 산업'이다. 그러므로 스포츠산업의 핵심인 스포츠는 공공재이면서 산업재라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스포츠산업은 스포츠를 매개체로 산업화되는 매우 다양한 현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공급자 중심의 톱 다운(top-down)식 접근이나, 판매 증진을 위한 단기적 처방식의 상업화 방안과는 큰 차이를 갖는다. 오히려 그동안 소외받고 주목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소비자들에 의해 발전해나가고, 소비자로 인해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제고, 의료비 감소와 같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던 공공재이자, 그 자체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면서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끊임없이 신사업을 창출시키는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산업재이기도 하다. 공공재이자 산업재로서의 스포츠산업의 역할과 개념,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온라인 와글와글

日 혐한류 책 20만~30만부 기본, 참 특이한 문화코드!



○…일본에선 혐한 책을 내기만 하면 20만~30만부는 기본으로 팔린다는 소식에 네티즌이 분개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선 "대체 우리한테 무슨 열등감이 있어서 이러는 거니? 국민성이 의심스럽다","우리는 정신 차리고!! 일본에 대해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을 해야 해. 그리고 우리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강대국이 되어야 해", "혐일본 책 쓰면 우리는 외면하는데 일본은 정반대네. 쟤들은 역사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돼", "그래? 한국인 더럽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별다른 내용도 없는 것 같던데", "이런 책이 20만~30만부씩 팔리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민들 수준이 어떤지 알만하네."등 비난 의견이 많았다.

○…저금리 상황에서 금값이 최고가 대비 70% 가까이 떨어질 거란 소식에 자산가들 사이에서 '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네티즌은 "금은 무조건 사야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금과 은은 금융체제 안에 소속되지 않은 유일한 금융자산 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합니다.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분산투자로 현물 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 최고로 비쌀 때 금 잔뜩 사서 쌓아 놓더니 손실보전 조금이라도 하려고 언론까지 동원해서 발악하는구나", "나도 골드바 사야겠다. 부동산 대폭락은 와도 금값은 일단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아직 26%밖에 안 떨어졌는데? 물론 계속 내림세긴 하지만 투기 대상될까봐 함부로 못 사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세계서 가장 비싼 시계, 263억원… 제작기간 상상초월
2. 오늘 새벽 서울 첫눈, 추운 날씨 이어져
3. 유가는 하락, 금값은 상승… 금값 얼마 올랐나보니
4. IS 자체 화폐 발행 계획 공개, '초승달' 문양 의미는?
5. [시승기]닛산 캐시카이, 어리버리 초보도 '명품 운전자'로

오늘의 BAE 배국남.com

www.baekn.com

영화 '퓨리'들고 세 번째 한국 찾은 브래드 피트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새 영화 '퓨리'를 들고 내한했다. 브래드 피트는 벌써 세 번째 내한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 있었다. 1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내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브래드 피트는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줘서 감사하다. 벌써 세 번째 한국 방문이다. 매번 따뜻하게 환영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브래드 피트는 한국에 자주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 방문은 내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한국 영화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적 성장에 발맞춰 영화, 음악 시장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 음식도 최고다"라고 말했다.

브래드 피트는 또 주연 배우인 동시에 제작자로 참여한 소감을 묻자 "제작에 참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이 제작 과정의 모든 힘든 일을 도맡아 했다. 난 명예 제작자"라며 "'퓨리'를 통해 전쟁의 끔찍함을 말하고 싶었다. 군인으로서 얼마나 심리적 부담을 겪어야 하는지도 표현하고 싶었다. 요즘 시대가 잔인한 만큼 영화가 시사하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피트는 또한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난 영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영화는 세상을 보는 창이자 세상을 보는 관점을 형성해준 매개체였다. 그래서 그동안 영화로 받은 것들을 내 삶에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몰입도다. 또 유니크해야 한다. 요즘은 유기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영화를 찾고 있다. 항상 도전하고 훌륭한 아티스트와 작업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내가 작품을 사랑하면 그 작품을 사랑하는 1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명언을 언급했다. 최두선 기자 sun@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주문생산 전문업체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광고에 게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참인희 칼럼



이화여대 교수

엄마의 정보력

드디어 올해 수능시험도 막을 내렸다. 무엇보다 젊음의 한 자락을 대학입시를 위해 헌신한 수험생 모두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수능 한 달 전부터 아파트 단지마다 "수험생을 배려해 달라"는 공지사항이 나붙고, 비행기 이착륙(離着陸) 시간마저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수험생들 잘 버텨준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리라.

한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주인공 '수험생 엄마'의 노고에도 높은 점수를 드리련다. 굳게 닫힌 고사장 교문 앞에서 강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던 엄마의 옆 얼굴, '내 자식 철썩 붙어주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엿가락을 정성껏 학교 담장에 붙이던 엄마의 주름진 손등은 오래도록 우리네 대학입시의 상징 아니었는지.

어쩌면 엄마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는 자녀의 4대 성공요건(조부모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둘째의 희생) 중 '엄마의 정보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엄마의 정성과 염원이 진화(?)한 결과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각 대학 입시 설명회장은 수험생 대신 학부모들이 점령한 지 오래되었으니 논외로 하되, 다만 엄마의 정보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한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리란 생각이다.

예전 글로벌 기업 인사담당 임원이 대학교수들 앞에서 특강을 하는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특강 주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었고, 대학교수 모두 사회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꿰뚫어보고 이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취지의 강연이었다. 강연 중 구직(求職) 청년들의 행태를 바둑 18급에 비유한 내용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내용인즉 요즘 대학생들은 바둑 18급들끼리 모여 "어떻게 하면 1단 딸 수 있지?" 고민하는 모양새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1단이 되고 싶으면 1단을 만나 정확한 정보를 얻고 부단히 실전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고만고만한 수준의 아마추어들이 모여 불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품새가 그렇다는 것이다.

비단 대학생들뿐이랴,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해 올인하는 수험생 엄마들 행태도 바둑 18급에 비유되는 청년 구직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내로라하는 수험생 엄마의 정보력이란 것이, 학원가 유명 강사나 족집게 과외선생 이름을 꿰고 그들의 몸값을 기억하는 것, 더불어 내신 성적, 학생부 기록, 수능 점수로 어느 대학 무슨 과에 갈 수 있는지 눈치작전을 펼쳐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들 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은 진정 무엇인지? 그 꿈을 실현하려면 어떤 전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즈음 한국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전공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아들 딸은 이토록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쌓여있건만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저 눈앞의 경쟁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우리네 슬픈 자화상 아니겠는지.

더 더욱 주위를 돌아보면 소신있게 자녀를 교육하는 건강한 엄마들의 신선한 이야기들도 차고 넘치는데, 왜 굳이 불건강하고 자극적인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만 우리 주위를 떠돌며 엄마들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자라나는 아들 딸에게 골목의 재미를 선사하고 싶어 편리한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굳이 골목길이 있는 동네로 이사한 엄마,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양한 경험이라 굳게 믿고 학원비 대신 방학이면 자녀들과 국내외로 배낭여행을 떠난다는 부모,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인문학 공부에 몰두하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엄마들. 이런저런 이야길 듣노라면 입가에 미소가 돌고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는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된다.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의 승리라 해도 좋을 사교육 괴담은 이제 엄마들 스스로 사양했으면 한다. '진짜' 엄마의 정보력은 자녀들 마음을 읽고 헤아릴 수 있는 혜안, 언제 자녀들 등을 두들겨주어야 하는지 느낄 수 있는 민감함, 그리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때까지 자녀를 기다려 줄 수 있는 인내심이란 사실, 기억할 일이다.

객석

미래 트렌드의 핵심은 인간 소외



김 형 석
북팔 대표

조금 과장을 섞어 표현하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1초의 시간은 과거 100년 전 선조들의 겪었던 1년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응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그 속도감은 놀라울 지경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의 가치관은 과거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 두 가지 갭이 점점 더 벌어져 모순의 극대화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즉 체스에서 말하는 체크메이트 상태로 달음박질 치고 있다. 결국 이 모순은 어느 순간 폭발할 것이다. 그것이 참혹한 결론이든 아님 극적인 타협이든 말이다.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발상을 부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미래의 해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우리 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을 지워나가야만 우리는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 흐름 속에 개인은 그저 한낱 부속품이 되는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 계속 반복된다면 인간이 제대로 대접받는 시대는 앞으로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부속품화되고, 파편화되고 세상 모든 일에 소외당하는 일이 반복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계급사회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못받는 상황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에 따른 차별이 일상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무시무시한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과거식 생각으론 안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질서란 무엇인가?

무엇보다 시장이라는 구조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을 단지 가장 싸게 물건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해석한다면 지금의 변화를 이겨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기업단위 생산품의 유통공간으로 한정하여 시장을 바라보면 그 역시 지금의 변화 흐름에 빨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을 생산과 소비의 공동체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만 비로소 우리는 인간소외라는 미래의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수첩

현대重, 개혁보다 노사관계 먼저



김 범 근
산업부/nova@

올해 3분기까지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현대중공업이 조직 개편에 한창이다. 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지지부진한 임금 및 단체협상이다. 임단협이 장기화되면서 커지고 있는 노사 간 갈등 봉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현대중공업은 4분기 실적 반등을 위해 최근 강도 높은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최길선 회장과 권오갑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들은 앞서 임원 30% 감축,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영업본부를 통합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진행해왔다. 조만간 현업 부서의 부장급 이하 일반사원들 인사도 빠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10일에는 과장급 이상 직원 5000여명에 대해 기존 호봉제 대신 연봉제로 적용, 무한 경쟁시대를 예고했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쇄신 방안과 달리 노사간 임단협은 지지부진하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협상테이블에 앉아 50여 차례 의견을 교환했지만 타협에는 실패했다. 노사간 기본급과 성과급 등 임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임단협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3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결정했던 파업 유보를 철회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현대중공업은 20년만의 파업 사태를 맞게 된다. 노조는 회사 측이 파업의 적법성 여부를 근거로 문제 제기에 나서자 부분파업 돌입을 지금까지 유보하고 있지만, 파업의 뇌관은 현재도 껴안고 있는 셈이다.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개혁작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회사의 일선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계획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측과 노조 모두 한 걸음 물러서, 이견을 좁히는 것이 급선무다.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공시, 두려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공시는 자본시장법 및 공시규정에 따라 상장사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다. 투자자와 시장에 보다 명확한 기업 현황을 알리는 통로이기도 하다. 주기별로 경영실적과 특이사항, 주주변화, 매출과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생겨도 공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 더 활발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배경이기도 하다.

상장사가 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불성실 공시법인이 된다. 안타깝게도 올 상반기에 불성실공시법인이 크게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13곳, 코스닥 20곳 등이다. 10년 전인 2004년에 비해 6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시장이 커지고 자금이 많아지면서 공시도 그만큼 늘었났기 때문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시세표에 일정 기간 동안 '불성실 공시법인'이 표시된다. 자칫 실수로 공시 내용을 번복하거나 공시가 지연돼도 낙인이 찍힌다. 이는 곧 투자자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은 늘 공시에 신중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에게 공시는 항상 부담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수치 하나 잘못 표기해도 시장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시 직전 몇 번을 반복해서 이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만큼 공시는 숫자와 글자 하나까지 중요한 정보다.

올해도 여지없이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공시가 쏟아졌다. 국회 각 특위별로 정부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여기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가 이어졌다. 대부분 담합이나 부정입찰 등을 지적한 사례였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이들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제한'이 내려지기도 했다. 물론 해당 건설사들은 곧바로 '입찰제한 효력정지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입찰제한이 내려진 기업이라면 이 사실을 공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 아무리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더라도 투자자에게 입찰제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입을 닫는 상장사가 있다. 해당 기업은 "매출에 현저한 변화를 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시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입찰제한 효력이 없는 상태"라고 답한다.

국가에서 일련의 행위를 이유로 특정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기업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용해 공시의무마저 저버리고 있다. 관급공사 입찰제한은 분명 이유가 존재한다.

기업에게 내려진 일련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런 경고는 그 수위와 상관없이 기업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알려야 한다. 공시 여부는 기업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결국 이는 시장의 몫이다.

자본시장부 차장 junior@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아픈 몸은 깨달음을 위한 좋은 도구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영성 분야 최고 권위의 노틸러 북 어워드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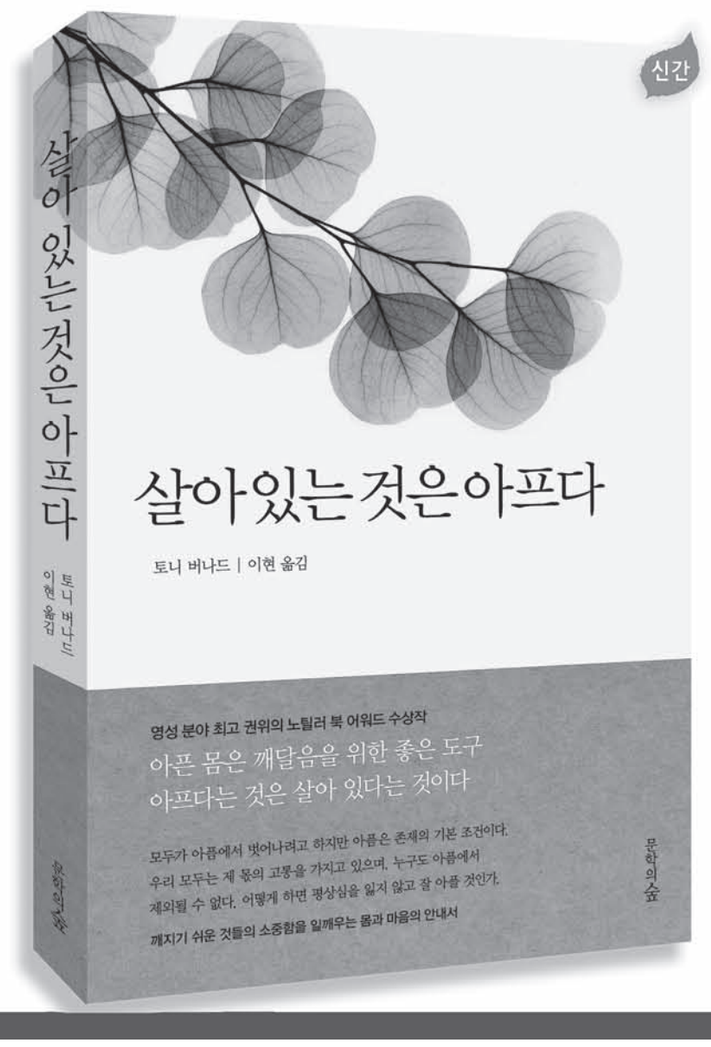
인생의 정점에서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 쓰러진 법대 교수의 감동적인 실화. 그녀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상실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되었다. 영혼에 대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인생의 춤과 함께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안내서

깨지기 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몸과 마음의 안내서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 이현 옮김 | 236쪽 | 13,500원

문학의숲 당신을 닮은 좋은책 TEL 02)325-5676



사법시험 이색합격 3인

"민원인 소송 도우며 法공부 시작했죠"

경찰대 출신 첫 사시 수석합격 김신호 경위

현직 경찰 13년차… "실무지식 활용 사회에 도움"



"경찰로 일하면서 민원인을 만나면 민사소송법을 잘 몰라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한 경찰대 출신으로 받은 혜택이 많은데, 실무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해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법시험 수석합격 소식을 접한 김신호(34·사진) 경위(부산진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의 말이다. 13일 발표된 제56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204명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김 경위는 경찰대 18기 졸업생으로, 2002년부터 실무를 시작한 13년 차 현직 경찰관이다. 경찰대 출신이 사법시험 수석합격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경위는 "아직 얼떨떨한 기분"이라며 "실력이 모자란데, 운이 좋아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 경위는 6살짜리 아들과 3살 딸을 둔 가장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일과 시험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몸도 고됐지만, 가장으로서의 중압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2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제가 잠을 자는 동안 아내가 혼자 병원에 가서 둘째를 낳았어요. 남편과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도와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 경위는 곧바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예정이다. 수료 후 구체적인 진로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게 그의 포부다.

"얼마 전에 인천지역에서 청소년 본드 흡입 문제가 심각해서 그 지역 판사님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어요.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본드판매점을 상대로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문을 돌리고, 제조사까지 찾아가서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도 근본적인 문제원인을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

"비법 알려준 누나 덕분… 목표는 변호사"

〈여주지청 윤혜령 검사〉

윤종규 KB금융 회장 내정자 아들 윤보령씨

아버지 이어 7년 전 공인회계사 최연소 합격도



윤종규 KB금융 회장 내정자의 아들인 윤보령(27·사진)씨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윤 씨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회계사 시험과 누나에 이어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게 됐다. 윤 내정자는 KB금융 회장 선임에 이어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윤씨는 연세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2007년 스무살의 나이에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합격자 850명 중 최연소로 합격했다. 윤씨는 판사나 검사 보다는 변호사로서 사회 변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합격 소감의 뜻을 밝혔다.

윤씨가 공부하는 데는 여주지청 검사로 활동하는 누나 혜령(32·사법연수원 40기)씨가 많은 비법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사법고시에 도전한 이유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률 지식도 쌓으면 진로 범위가 넓어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차 시험에 번번이 미끄러지면서 고민도 많았다고 한다. 그때마다 아버지 윤종규 회장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

윤보령씨의 국가공인시험에 대한 열정은 윤종규 내정자를 쏙 빼닮았다. 국내 대표적인 회계·재무 전문가로 꼽히는 윤 내정자는 아들 윤씨에 27년 앞서 1980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윤 내정자는 이듬해 행정고시에도 합격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슈퍼모델대회 1위 출신 이진영씨, 10년준비 결실



슈퍼모델 출신 이진영(38·여·사진)씨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부는 13일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씨는 동국대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7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나가 180cm의 큰 키와 눈에 띄는 미모로 1위를 차지했다. 대회 당시 이씨는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인재로 소개됐다. 이씨는 그 후 모델로 활동하지 않고 2000년대 초반부터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혜은 기자 euna@

80번째 비전포럼 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임원들 경쟁력 강화 노력 기울여야"



사진제공 현대그룹

현정은〈사진〉 현대그룹 회장이 그룹 임원들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그룹은 13일 '비전 포럼(Vision Form)'이 이번 달로 80회를 맞았다고 밝혔다. 비전 포럼은 임원들의 경영마인드와 자질 향상을 위해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매월 열리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초빙된 강사만 100여명에 이른다.

현 회장은 평소 "임원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현 회장을 비롯한 그룹·계열사 임원들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전 9시면 종로구 연지동 그룹본사에 모여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사회·경제 이슈에서부터 인문학, 종교,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듣는다. 비전 포럼은 현대경제연구원이 주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고 강연 주제는 강사의 자율에 맡긴다. 그런 만큼 현대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고 보편적인 내용들로 진행되고 주제가 다채롭기까지 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앞으로도 각 사의 특성에 맞는 임원들의 직무교육과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올해 최고 경영인' 래리 페이지 구글 CEO

美 포춘지 선정, 2위는 팀 쿡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올해 최고의 경영인'으로 구글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인(CEO)인 래리 페이지를 선정했다. 13일(현지시간) 포춘지는 올해의 경영인 50명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페이지를 첫 번째로 꼽았다.

포춘은 "래리 페이지는 세계에서 가장 대담한 CEO이며 그의 전설적인 '문샷(moonshots)'이 순조롭게 시작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moonshot'은 달을 관측하고자 망원경 성능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탐사선을 직접 보내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뜻하는 말이다.

페이지에 이어 애플의 팀 쿡 CEO가 2위로 선정됐다. C형 간염 치료제인 '솔바디'를 개발하는 등 제약업계에서 큰 히트를 여러 번 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회장이자 CEO인 존 마틴이 3위로 뽑혔다. 이밖에 멕시칸 패스트푸드점 치포틀의 공동 CEO인 스티브 엘스와 몽고메리 모런이 4위에, 데니스 라모스 ITT CEO가 5위에 올랐다. 알리바바그룹홀딩의 마윈 회장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올해의 최고 뮤지션' god·아이유·태양

2014 멜론 뮤직 어워드 선정

지오디(god), 아이유, 태양이 올해의 최고 뮤지션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1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4 멜론 뮤직 어워드(MelOn Music Awards 2014)'에서 각각 앨범상(대상)과 아티스트상, 베스트송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들 세 팀은 음원 판매량과 대중의 투표로 뽑은 '톱10'에도 선정돼 2관왕을 차지했다.

그룹 비스트는 네티즌 인기상과 톱10상을 받았고, 위너는 신인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 '썸'을 부른 소유와 정기고는 핫트렌드상, 드라마 '별에서 온그대' OST '마이 데스티니(my destiny)'를 부른 린은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부문, 남편 이수가 속한 엠씨더맥스는 발라드 부문에서 각각 수상자로 선정돼 부부가 모두 시상대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지난 9월 사고로 세상을 떠난 권리세와 고은비가 속한 그룹 레이디스코드는 'MBC 뮤직 스타상'을 받았다. 고(故) 신해철의 추모 무대도 마련됐다.

김민정 기자 mj_kim@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상징과 같은 쌍각 모자가 프랑스 경매 시장에 등장했다. AP/뉴시스

경매 나온 '나폴레옹 모자'

모나코 왕궁 보수비 마련용 낙찰가 6억8000만원 예상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상징과 같은 쌍각 모자가 프랑스 경매 시장에 등장했다.

퐁텐블로의 오세나 경매소에 나온 나폴레옹의 검은색 펠트 모자는 그가 지휘하던 부대의 말 수의사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현재 모자의 상태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없어 많이 닳지는 않은 상태다. 경매소 측은 "모나코의 현 국왕 알베르 대공의 증조부인 루이 2세가 수의사의 후손으로부터 이 모자를 직접 사들여 왕실 소장품으로 삼았다"며 낙찰가격을 50만 유로(약 6억8000만원)로 예상했다.

나폴레옹과 먼 친척 관계인 모나코 왕실은 모자와 함께 수십 개의 메달과 장식용 열쇠, 문서, 보석이 박힌 칼, 총알 구멍이 난 부대 깃발 등을 포함한 나폴레옹의 다양한 유품을 경매로 내놨다. 모나코 왕실이 이 같이 나폴레옹의 유품을 경매에 내놓은 것은 왕궁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나 경매소의 피에르 오세나 사장은 "사실상 박물관 하나가 통째로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폴레옹의 모자 120개 중 현재 남아있는 모자는 19개뿐이고 이 가운데 2개만 민간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경매소 측은 전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신임 의장 김희중 대주교

"편가르기 벗어나 약자 위한 고민을"



연합뉴스

"우리 사회가 편 가르기에서 한 발짝 물러섰으면 좋겠다. 서로를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어색한 관계가 많이 줄어든다. 특히 피눈물을 흘리는 약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신임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13일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한국 사회의 편가르기를 경계하고 약자들을 위한 봉사를 강조했다.

김 대주교는 최근 주교회의 의장에 선출된 것에 대해"심부름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통분모를 발견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주교는 정치인들도 비슷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말로는 공복(公僕)이라면서 선거 전후가 완전히 다르다. 지자체장 등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선거 전에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던 마음으로 봉사하다 보면 4년 뒤에는 따로 선거운동이 필요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곤 한다"고 털어놨다.

김 대주교는 또 이날 끝난 제20회 한·일 주교 교류모임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만남을 통해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거랑 직접 만나는 건 다르다. 개인이나 국가나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밝혔다.

김 대주교는 이어 "지난 8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처럼 한국천주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는 경제적 빈곤자뿐 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무의탁 어르신 등 사회 소외계층과 약자들이 모두 포함된다"며 "교회가 말로써만이 아니라 그들과 최대한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숙대 특강 앞둔 미군 첫 한인 女 아파치 조종사 사라 전 중위

"한국인 근면성실… 늘 자부심 가졌죠"

미국 육군 최초의 한국계 여성 아파치 조종사인 사라 전 중위가 숙명여자대학교 학군단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

숙명여대는 오는 18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에서 사라 전 중위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인 사라 전 중위는 지난 2012년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포트 러커 비행학교를 거친 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올해 3월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에 배치됐다.

그는 "근면 성실한 한국인의 모습에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문화와 언어에 대해 많이 익히고 싶다"고 말했다.

사라 전 중위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미 육군의 주력 공격 헬리콥터인 아파치를 조종한다. 비행훈련 때도 유일한 여성이었으며 특히 한국계 여성 아파치 조종사는 그녀가 최초다. 남자들도 견디기 힘든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강연에서 사라 전 중위는 여군 장교를 꿈꾸는 학군단 후보생들에게 자신이 미 육군에 입대해서 임관하기까지 겪은 경험담과 헬기 조종사로서의 삶 등에 대해 생생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조언할 예정이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학생들과 질의응답도 한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 쪽방촌에 사랑의 김장김치

NH농협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은 13일 김장김치를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300가구에 전달했다. 임 회장은 이날 강원도 홍천군 좌운1리 왕대추마을 주민들과 함께 김치를 담궜다.

임 회장(좌측 첫 번째)과 농촌마을 주민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인사

◆교육부 △교육정책실장 김동원 △학교정책관 오승걸

◆금융투자협회 ◇부서장 전보 △경영지원부 부장 이도연 △증권지원부 부장 이동원 △자격시험관리실 실장 황락성 △소비자보호실 실장 김형기

◆숭실대학교 △학사부총장 장범식

◆미디어펜 △편집국장 임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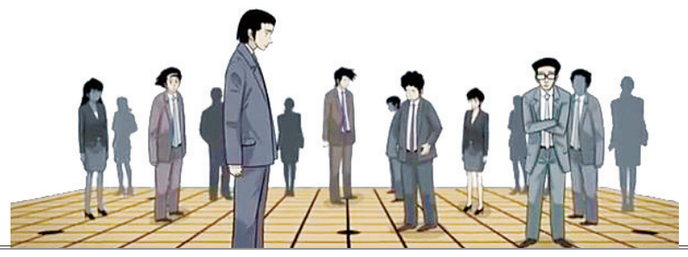
부음

▲유창재(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씨 모친상 = 13일 오후 5시 20분, 경기 안성시 성요셉병원(성혜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5일, 031-671-6500

▲서성호(김제시 행정지원국장)씨 부친상, 나해수(전북도 창업지원팀장)씨 시부상 = 13일 오전 8시, 김제 새만금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063-545-0033

▲여익환(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한미공공정책위원회 사무총장)·혜영씨 모친상 = 13일 낮 12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장례식장 5층 54호, 발인 15일 오전 9시 30분, 051-580-1334~5

▲조운희(충북도 농정국장)씨 부친상 = 13일 오전 6시,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043-871-0444



2014년 대한민국 무예

道를 아십니까

Cover Story

武道의 사회경제학

"태! 권! 도!" 사범의 굵직한 선창이 귀를 쫑긋 세웠다.
이내 아이들의 힘찬 구령이 이어졌다.
얼마 후 하얀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의 손에는 가방이 없다. 그래서인지 표정도 밝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선 홀가분함이 느껴진다.
아이들의 태권도 경력을 대변하는 형형색색의 띠는
어린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다.
세월은 흘렀어도 품띠에 대한 로망은 변하지 않았다.

태권도는 아이들에겐 일상이다. 오랜 경기 불황 속에서도 태권도는 뿌리 깊게 성장하며 사교육 속 또 다른 사교육으로 자리를 굳혔다. 어릴 적 하얀 도복 한 번 안 입어본 아이들이 많지 않을 정도다. 신체 단련과 정신 수양이라는 두 토끼 때문이다.

경기 수원에서 K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이세훈(39)씨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7세 유아 부모들의 상담이 많다. 단순히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 집에서 가르치기 힘든 예절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불황 속에서도 태권도장이 꾸준히 운영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고 전했다.

어디 태권도만 그럴까. 합기도·유도·검도 등 무도(武道)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치는 일반 스포츠와는 출발선부터 달랐다. 1953년 대한유도학교(용인대학교의 전신)가 설립됐고, 경희대학교에는 세계 최초 태권도학과가 개설됐다.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야구·축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왜 무도일까. 거기에는 무도와 사회와 경제의 미묘한 삼각관계가 존재한다. 올림픽 효자종목으로서 국가적 기여도가 높았고, 신체 단련과 정신 수련이라는 교육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었다. 선수 외에도 사범과 교사·경찰·경호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도 얻을 수 있었다. 허리띠 졸라매던 시절 무도는 출세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스포츠 평론가 신명철씨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후 서양에 비해 신장의 열세에 놓인 우리나라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체급이 나눠진 무도(태권도·유도)나 격투기(복싱·레슬링) 종목뿐이었다"며 "단순히 체력 단련이 목적인 다른 운동 종목과는 달리 심신 수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강조된 만큼 학교마다 무도 종목을 교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무도는 역대 하계올림픽 무대에서 눈부신 성적을 남겼다. 1948년 런던올림픽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종목별 메달 현황에서도 태권도와 유도는 각각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올림픽 금메달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국민의 자부심과 사회·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무도의 이면에 자리한 씁쓸함은 지울 수 없다. 국제대회 호성적에도 불구하고 비인기 종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용인대 김성섭 박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힘들고 위험하다는 잘 못된 인식이 있어 부모들이 먼저 외면한다. 졸업 후 취업률도 예전 같지 않아서 무도가 마치 엘리트선수들을 위해 존재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무도 강국의 씁쓸한 이면을 들춰 보였다.

김 박사는 또 "최근에는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무도정신의 퇴색도 우려되고 있다. 선수들의 헝그리 정신도 예전만 못해 선수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위기임에 틀림없다. 무도의 사회적·경제적 특수성을 인식하고 장기적 투자·육성이 절실한 때"라고 주장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일러스트 사유진 기자 yjsa2018 @

커버스토리 16·17면

무예, 태권도·유도 등 스포츠의 또 다른 길
학생들에겐 예절·체력·정신 수양의 가치

일반인들에겐 사범·선수·경찰 등 취업길
국제대회 메달효자되며 국위선양 길까지

불황속에서 인기 사교육으로 지켜온 길
엘리트 주의·상업화로 힘겨운 생존경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없지만… 오늘도 도복띠 질끈



무도 종목의 실업팀은 비인기 종목 특성상 대부분 지자체나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서 금메달을 딴 한국마사회 소속 김재범 선수(큰 사진)와 하이원유도단 모습.



무도 실업팀 '고군분투'

무도 종목의 실업팀은 대중들의 화려한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 일반 기업체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실업유도연맹 산하 27개 실업팀 중 사기업 팀은 단 한 곳도 없고 공기업 팀도 세 곳(하이원·한국마사회·코레일)에 불과하다. 태권도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국실업태권도연맹 소속 31개 실업팀 중 사기업팀은 3곳(삼성에스원, 덕광기업, 제이칼리쿠)뿐이다.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무도 종목 실업팀을 살펴봤다.

대부분 지자체·공기업 위주로 운영
비인기 종목 탓 일반 기업에선 꺼려
올림픽 5개 금메달 에스원태권도단
'70년 전통' 코레일유도단 등 구슬땀
"마케팅 효과보다 무도 발전에 초점"

코레일유도단은 전통에 빛나는 팀이다. 1945년 전신인 교통부 유도부로 발족해 7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올해 연고지를 대전으로 이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선수단은 11명(감독 1명·코치 2명·선수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봉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선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기업의 특성상 마케팅 측면보다는 유도 자체의 발전을 위해 팀을 운영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앞으로 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하이원유도단은 비인기 종목의 후원이라는 차원에서 창단됐다. 선수단은 6명(감독 1명·남자선수 3명·여자선수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봉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많게는 9000만원 이상 받는 선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하이원 관계자는 "매년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과 근무에 따르는 비용도 회사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올림픽 때는 별도의 성과급도 있으며 연간 운영비만 9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유도단은 경마로 발생하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선수단은 11명(감독 1명·코치 1명·선수 9명)으로 이뤄져 있고 운영비로 20억원 정도 든다. 연봉은 3500만원에서 4000만원선으로 전해지고 있고, 김재범 선수의 경우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1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졌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대학생들 중 상위 클래스만이 유도단에 들어온다. 선수단에겐 합숙이 기본이고 연봉이 지원된다. 추후 지원 확대나 축소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에스원 태권도단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IOC위원으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창단했다. 한국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 10개 중 5개는 에스원 태권도단 출신이 땄다. 불우청소년 중 태권도를 하는 학생을 매년 2명씩 2년간 지원하는(1200만원·월 50만원씩) 큰나래 장학금도 운영하고 있다.

선수단은 17명(감독 1명·코칭스태프 3명·프런트 2명·선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봉은 업계 상위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에스원 관계자는 "선수들을 위한 체계화된 훈련시스템과 훈련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을 약속해 선수들이 동기를 가지고 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근 기자 sgchoi@

인 터 뷰 '지도자로 제2 인생' 최민호 용인대 교수

"유도는 예의를 갖춘 멋진 운동"

힘들기만 한 운동이란 잘못된 인식
한국유도 활성화 위해 바로 잡아야
'1등 지상주의'도 선수들에겐 부담



"1등만 바라봐 주는 사회에서 유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었다."

그는 유도인으로서 맛볼 수 있는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전 경기 한 판승이라는 괴력을 발휘하며 금빛 업어치기에 성공했다. 그러나 4년 뒤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고, 그걸 마지막으로 도복을 벗었다. 이젠 자신을 만들어준 유도를 위해 제2의 인생을 걷고 있다.

'한판승의 사나이' 최민호 용인대 유도학과 교수 얘기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유도를 시작한 최 교수는 "유도를 하는 매순간 힘들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21년간 선수로 뛰게 했던 유도는 분명 매력이 있다고 한다. "유도는 작은 힘으로도 큰 사람을 쉽게 던질 수 있는 운동이다.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던지는 매력을 느껴본다면 유도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최근 근황은?

"현역 은퇴 후 용인대 유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받아왔던 것들을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큰 스트레스는 없지만 후배들이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많이 안타깝다. 그래서 선수들이 열정을 갖고 운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국가대표로 뽑히지 못한 선수들의 진로는?

"실업팀이나 고등학교 코치로 많이 빠진다. 솔직히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 지금 한국 유도가 많이 침체돼 있다. 유도 저변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지원을 말하는 건가.

"유도 활성화를 위해 많이 알려야 한다. 힘들기만 한 운동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데 바로 잡아줘야 한다. 사실 예의를 갖춘 멋진 운동이다."

△한국에서 유도인으로 사는데 어려운 점은?

"우리나라는 1등만 바라봐 준다. 그러나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도 경기가 안 풀릴 때가 있다. 그래도 무조건 1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

최성근 기자 sgchoi@

세계 각국 대표 무도

우슈, 전세계 10억명 수련
공수도, 유럽·남미서 인기
무에타이, 천년 전통 무술

대한민국에 태권도가 있듯, 세계 각국에는 심신 단련에 도움을 주는 여러 무도 스포츠가 있다.

공수도는 손과 발을 중심으로 온몸을 이용해 치고, 차고, 꺾고, 던지는 기술을 사용하는 정신 수양을 겸한 무도다. 종주국은 일본이고 현재 180여개국 1억여명이 넘는 인구가 호신, 건강, 여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련하고 있다. 세계무대에서는 유럽이 강국이다. 브라질,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공수도가 인기 종목이라 공수도 전문 잡지와 전용 스타디움이 따로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동,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슈는 중국의 전통 무술로 승려들의 신체 단련을 목적으로 발전시킨 쿵푸를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우슈의 종류로는 남자는 도와 곤으로, 여자는 검과 창을 사용해 기본동작을 실시하는 장권과 남권, 태극권이 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이하성 선수가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기며 화제를 모았다. 전 세계 우슈 인구는 10억명가량으로 추산되며 이중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이밖에 무에타이는 1000년가량을 내려온 태국의 격투 기술로 팔꿈치와 무릎, 정강이 등의 파괴력 있는 부위를 주로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무에타이와 공수도 등을 결합한 킥복싱이 생겨나기도 했다.

최성근 기자 sgchoi@

200여개국 8000만명 "태! 권!"… 스포츠 한류 원조



지난달 30일 멕시코 아과스칼리엔테스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첫날 여자 개인 유소년부(12~14세) 경기 중 한국의 최수영이 품새 동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세계태권도연맹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도 외교'

"차렷!" "경례!" "시작!" 태권도 사범의 지시에 따라 아이들의 겨루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도복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이 어딘지 어설퍼 보인다. 여기는 한국 태권도장이 아니다. 한국인 사범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다. 도장이 없어 맨땅에서 맨발로 태권도를 배워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이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이 난다.

스포츠 한류의 시발점은 태권도 사범의 해외 파견이었다. 1960년대 국군의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단이 베트남에 파견되면서 시작된 태권도 사범의 해외 파견은 태권도뿐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 사절단 역할을 했다. 지금은 200여 개국에서 80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1960년대 軍교관 베트남 파견 시작

2009년부터 사범 해외파견 본격화

한국어·한국문화 전파 '민간외교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글로벌 무도'

대기업, 개도국에 장비 후원 등 나서

국기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도 아시아 5개국(동티모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타지키스탄·태국)과 아프리카 4개국(레소토·알제리·우간다·케냐), 남미 2개국(콜롬비아·파나마), 유럽 1개국(벨라루스)에 태권도 사범을 파견한다. 국기원은 지난 2009년부터 문화부와 함께 태권도 사범을 해외에 파견, 태권도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사업을 벌여 왔다.

세계로 파견된 한국 태권도 지도자들의 인기는 스포츠 스타 못지않다. 한국 유학생 올즈하스 비스베예브(28세·카자흐스탄)는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지도 노하우와 리더십도 뛰어나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겐 없는 많은 것을 지니고 있어 인기"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빅 이벤트에서의 성적이 빛났다. 특히 유도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64년 도쿄올림픽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금메달 11개·은메달 14개·동메달 15개로 총 4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쇼트트랙(금19·은11·동7)과 양궁(금19·은9·동6)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메달 순위다.

40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동안 레전드급 스타도 속속 배출됐다. 안병근·하형주(이상 1984 LA올림픽)·김재엽(1988 서울올림픽) 등이다. 이들은 올림픽 금메달을 통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고, 한국은 일본과 함께 유도 강국으로 1980년대를 호령했다.

국기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다. 1988년 서울올림픽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1992년 바르셀로나와 1996년 애틀랜타까지 올림픽 3회 연속 시범종목을 유지하다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정식종목에 포함됐다. 스포츠 외교의 승리였다.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대회부터 2012년 런던대회까지 12년간 4개 대회를 거치면서 금메달 10개·은메달 2개·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유도와 함께 효자 종목으로 군림해 왔다. 결국 유도와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합작한 메달 수는 총 54개다. 스포츠 한류의 시발점이 무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다.

국내 기업과 단체의 해외 원조도 스포츠 한류 확산에 일조했다. 베트남에 6개 계열사를 둔 CJ는 지난 2012·2013년 베트남 태권도 대표팀을 후원했다. CJ는 베트남 현지에 전자호구 등 장비일체와 훈련비용, 한국 전지훈련 체재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등 양국 간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 태권도를 한류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총재 김기웅)도 개도국에 평화봉사단원을 파견, 도복과 물품 지원을 통해 전 세계 태권도 붐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오상민 기자 golf5@



지난 1년간 해외 66개국에 파견돼 봉사활동을 펼친 국제청소년연합 소속 굿뉴스코 12기 해외봉사단원이 라이베리아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뉴시스

'검은 띠' 두른 유명인 누구

파비앙·박형식 '유단자'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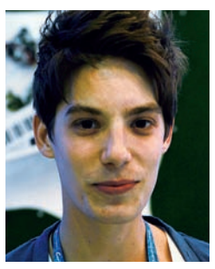
태권도 4단·검도 4단… 문대성 의원·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자타공인 고수'

정재계가 '검은 띠'로 무장했다. 정재계 인사들의 이력서에 태권도·유도·검도 등 무도 유단자 기록 한 줄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정재계 인사 중 가장 화려한 무도 경력을 가진 사람은 문대성(38·태권도 공인 5단) 새누리당 의원이다. 그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남자 80㎏ 이상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이다.

그러나 문대성은 스포츠인에 만족하지 않았다. 은퇴 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으로 당선됐고, 2012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받는 등 그의 발차기 인생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3월 19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대 박사학위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곧 사실로 드러나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김정행(71) 대한체육회장은 유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공인 10단이다. 그는 은퇴 후 유도 국가대표 감독을 거쳐 용인대 부총장, 용인대 총장, 경기도체육회 부회장, 대한유도회 부회장·회장, 대한체육회 부회장 그리고 대한체육회 회장까지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현재 생존자 중 유도 공인 10단은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92)과 이방근 재미 유도인(90) 등 세 명뿐이다. 고인이 된 석진경(1912~1990), 신도환(1922~2004)씨를 포함해도 5명이 전부다.



파비앙



박형식

김운용 전 IOC 위원은 태권도 명예 10단이다. 태권도 세계화와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힘쓴 공로다. 후안 사마란치 전 IOC 위원장과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도 태권도 명예 10단 보유자다.

연예계도 무도 유단자가 많다. 배우 최민수는 검도 명예 4단으로 대한검도회 홍보이사로서 각종 검도 대회 및 이벤트에서 검술 시범을 보인 바 있다.

그 밖에도 프랑스 출신 배우 파비앙은 태권도 4단, 제국의 아이들 멤버 박형식은 해동검도 4단, 배우 김혜수는 태권도 3단이다.

오상민 기자 golf5@

한체대 차고, 용인대 메치고… 金만 11개

전국 무도 명문학교 어디

태권도·유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둥지'

경희대 첫 태권도학과…고교는 춘추전국

경희대·용인대·한국체대. 3개 대학엔 공통점이 있다. 올림픽·아시안게임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 온 무도(武道) 명문이라는 점이다.

경희대는 세계 최초 태권도학과를 자랑하고, 1953년 대한유도학교로 문을 연 용인대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의 산실이었다. 한체대는 역대 하계올림픽 무도 종목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용인대는 유도에서 초강세를 나타내며 독주체제를 갖췄다. 안병근(1984·LA)·김미정(1992·바르셀로나)·이원희(2004·애틀랜타)·최민호(2008·베이징)·김재범(2012·런던) 등 역대 하계올림픽 유도 종목에서 탄생한 11명의 금메달리스트 중 5명이 용인대 출신이다.

하형주(1984·LA)는 동아대, 김재엽 계명대, 이경근(이상 1988·서울) 영남대, 전기영 경기대, 조민선(이상 1996·애틀랜타) 한체대, 송대남(2012·런던)은 청주대 출신이다.

반면 태권도는 한체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하계올림픽에서 나온 10개의 금메달 중 김경훈·정재은·이선희(이상 2000·시드니), 장지원(2004·아테네), 차동민(2008·베이징), 황경선(2008·베이징, 2012 런던) 등이 이 학교를 나왔다. 검도는 용인대와 영동대, 초당대, 조선대·목포대 등이 명문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고교팀은 전국적으로 평준화가 이뤄졌다. 1980년대 유도 명문이던 대구 계성고는 안병근, 이경근, 김재엽(이상 금메달), 황정오, 곽대성(이상 은메달) 등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를 배출해 내며 황금기를 누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수 수급에 유리한 수도권 고교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체고와 서울 보성고, 의정부 경민고 등이 강세다.

고등부 태권도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명문이 따로 없을 만큼 평준화됐다. 올해 9월 끝난 국방부장관기대회에서는 전주 영생고가 남고부, 전북체고가 여고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쉽고,편리한 투자의 시작

KYOBO 교보증권

교보증권 스몰캡 팀이

콕! 찍어드립니다

문자받고, 따라하는
참! 쉬운 투자서비스

대한민국 강소기업 창조1호 서/비/스



※ 창조1호 서비스는 추천종목을 문자로 제공하는 선택수수료 서비스입니다.

창조1호 서비스만의 특별한 혜택

하나 더 이상 종목 찾을 걱정 Zero! — 리서치센터의 포트폴리오 및 각종 리포트만 보면, 관심 종목이 한눈에!

둘 매매타이밍 고민 NO! — 스몰캡팀의 추천(제외)종목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발송, 그대로 따라하면 끝!

셋 실시간 종목 상담서비스 — 관심 종목에 정보가 부족하신 고객님을 위한 맞춤 1:1 종목상담 서비스!

※ 본 내용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서비스 체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창조1호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3개월 기준으로 예탁자산 300만원 이상 0.5%, 1천만원 이상 0.45%, 5천만원 이상 0.39%를 선취수수료로 적용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3987호(2014.06.20~2015.06.19)

이름만으로도 눈길 가는 세 巨匠



데이비드 핀처 '나를 찾아줘'
몰입도 높은 스토리 스릴러 작품
149분 상영시간에도 지루함 몰라

크리스토퍼 놀란 '인터스텔라'
웜홀 통한 시간여행 이론 영화화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 질문 던져

리들리 스콧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탈출 모세
유럽·아프리카서 글로벌 로케이션

11·12월 극장가 할리우드 대공세

잠잠했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공세가 시작됐다. 개봉 5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인터스텔라'를 선두로 비수기 극장가에 할리우드발(發) 태풍이 불고 있다.

그 배경에는 명감독들이 있다. '인터스텔라'는 '다크 나이트' '인셉션' '트랜센던스'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인터스텔라'는 웜홀을 통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식량 부족, 경제 붕괴로 멸망에 달한 지구에서 희망을 찾아 우주로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수상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매튜 맥커너히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앤 해서웨이, 제시카 차스테인, 마이클 케인 등이 출연한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인터스텔라' 제작 동기에 대해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우주에 나간 인간의 삶은 평행선상에 있다.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우주에 나가면 죽음은 더욱 확실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더 궁금해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나를 찾아줘'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 작품이다. '세븐' '조디악' 등을 통해 할리우드 이야기꾼으로 통한 데이비드 핀처는 이번 작품에서도 몰입도 높은 스토리를 선보여 스릴러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킨다. 149분에 달하는 긴 상영시간에도 관객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한다. 반전을 거듭하는 상황 설정은 벤 애플렉, 로자먼드 파이크의 연기와 맞물려 공감대를 자아낸다. '나를 찾아줘'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스릴러 흥행작 '셔터 아일랜드'(국내 최종 관객 100만6833명)의 누적 관객수를 뛰어넘어 지난 4년간 깨지지 않았던 국내 개봉 외화 스릴러의 역사를 다시 썼다.

오는 12월 3일 개봉할 예정인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다뤘으며 리들리 스콧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여기에 아카데미 수상 작가 스티븐 자일리안의 각본과 모세 역의 크리스찬 베일, 람세스 역의 조엘 에저튼, 시고니 위버, 벤 킹슬리 등 스타 캐스팅이 이뤄졌다. 특히 이 작품은 리들리 스콧 감독이 '글래디에이터' '로빈후드' 이후 진두지휘한 작품으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런던, 스페인, 아프리카를 넘나드는 글로벌 로케이션 촬영에 대해 "세트를 제작하고 로케이션 촬영을 하는 이유는 완전히 구체화된 환경이 주는 리얼리티를 원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상호 영화평론가는 "10~11월은 영화계 비수기로 일컬어지는데 할리우드 대작들이 속설을 깨고 있다. 특유의 웅장한 스케일에 탄탄한 스토리가 더해져 관객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무엇보다 크리스토퍼 놀란, 데이비드 핀처, 리들리 스콧 등 거장들의 복귀는 관객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두선 기자 sun@

인 터 뷰 | 7번째 내한공연 앞둔 팝스타 제이슨 므라즈

"한국 자주 오는 이유? 열정 넘치는 관객 때문"



한국팬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 팝스타 제이슨 므라즈(Jason Mraz)가 다시 한 번 한국을 찾는다. 2006년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을 통해 첫 내한공연을 펼친 그는 어느덧 7번째 한국팬들을 만난다. 이번 공연 콘셉트와 새 앨범 'YES!'에 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배국남닷컴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제이슨 므라즈는 "이번이 7번째 내한이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도시마다 그 지역 관객만의 에너지가 있다. 한국 관객들은 정말 열정적이다"며 "이런 부분이 한국에 계속 오고 싶어지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내한 소감과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내한 때마다 점차 큰 공연장을 통해 많은 관객(2만5000명) 앞에서 노래했던 그가 6여년 만에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 축소해 회귀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무대가 작아질수록 관객과 소통할 기회는 더 늘어난다"며 "소공연장의 경우 관객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물어볼 수 있다. 관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고 소공연을 기획하게 된 의도를 밝혔다. 또 "이번 공연에서는 레이닝 제인과 함께 신곡 'Long Drive'를 선보인다. 이번 앨범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곡"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그에게 국내 뮤지션 중 자신의 스타일과 비슷하거나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정성하를 꼽았다. 제이슨 므라즈는 "지난번 공연 때 함께한 기타리스트 정성하를 좋아한다. 뮤지션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음악을 대하는 그의 자세에 감동받았다"고 고백했다.

특히 제이슨 므라즈는 로이킴, 유승우, 김지수 등 수많은 국내 뮤지션들이 우상으로 손꼽은 뮤지션이다. 제이슨 므라즈는 "유튜브에서 내 노래를 커버하는 영상을 종종 본다. 재능 넘치는 뮤지션이 많아 놀라곤 했다"고 국내 가수 지망생들에 관심을 보였다. 또 그는 가수를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관객 앞에서 연주하라고 말해 주고 싶다. 내 첫 무대는 카페였다. 공연하고 싶어 무작정 카페로 가서 '여기서 노래를 불러도 될까요?'라고 했다. 그게 시작이었다"며 "당신의 능력을 끌어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이슨 므라즈는 "곧 찾아뵙겠다.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j_kim@

50부작 대장정 마친
JTBC '유나의 거리'

사람 냄새 풍기는 캐릭터 생활밀착형 감동 통했다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겼던 '유나의 거리'가 종영했다. 지난 5월 방송을 시작해 50부작 대장정을 이끈 JTBC 월화드라마 '유나의 거리'가 11일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유나의 거리'는 직업, 성별, 나이, 성격까지 천차만별인 사람들과 전직 소매치기범인 유나(김옥빈)가 사는 다가구주택에 착한 사나이 창만(이희준)이 들어온 후,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유나의 거리'는 평균 시청률 2%대를 유지하며 탄탄한 시청층을 구축했다. 김수현 작가, 소설가 이외수 등도 치켜세운 '유나의 거리'의 호평에는 김운경 작가의 필력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앞서 '한지붕 세 가족', '서울 뚝배기', '서울의 달', '욱이 이모' 등 드라마를 집필한 김운경 작가는 이번 '유나의 거리'에서 역시 서민을 배경으로 소소한 이야기와 생활에 밀착된 대사로 감동을 배가시켰다.

'서울의 달' 김운경 작가
뻔한 드라마 코드 벗어나



사진제공 JTBC

특히 맹목적인 러브라인, 명백한 선악구도 등 국내 드라마의 진부한 코드를 다루지 않고도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는 자극적 요소가 지배적인 국내 드라마 풍토에서 선례로 자리했다. 특히 유나와 창만을 비롯해 한만복(이문식), 장노인(정종준), 홍계팔(조희봉), 변칠복(김영웅) 등 뚜렷한 개성을 지닌 인물과 이를 소화해낸 배우들의 연기력도 뒷받침됐다.

한상덕 대중문화평론가는 "주연부터 조연까지 모든 캐릭터가 극 안에 살아 숨 쉬었다. 그만큼 극본이 짜임새 있다는 증거다. 또한 이를 연기해낸 이희준, 정종준 등의 연기도 일품이었다. 배우는 연기로 말한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밝혔다.

제작사 드라마하우스 박준서 CP는 "JTBC 드라마가 화제와 작품성을 동시에 잡았던 '밀회'의 후속작으로 '유나의 거리'를 선택했을 당시 상반되는 환경의 이야기를 다뤄 소재의 폭을 넓혀가고자 하는 의도였으며, 이는 적중했다. '유나의 거리'의 호평을 토대로 향후 JTBC 드라마의 방향성을 잡는데 길라잡이를 할 것"이라며 "드라마에서 가벼움을 담아낼지라도, 본래의 메시지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이 광고에 사용한 모든 서체는 KBIZ한마음체입니다



저작권 걱정 뚝!
중소기업 전용서체 무료배포

사용하는 문서프로그램의 서체에 이용 가능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로 법적조치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한마음체를 배포합니다.
저작권 고민 없이! 광고, 상표, 인쇄물,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BIZ한마음체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료배포하는 중소기업 전용서체
KBIZ한마음체 종류는? 고딕체, 명조체
KBIZ한마음체 사용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방문 〉 메인화면의 '무료서체 배너' 클릭 〉 다운로드 〉 설치 후 사용
KBIZ한마음체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093~4 *자세한 사용방법 및 라이선스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KBIZ 중소기업중앙회



1일 경기도 용인시 레이크힐스 용인CC에서 열린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2R, 김효주 프로가 13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LPGA

골프용품 후원사 명암

작년 박인비 드라이버와 퍼터 불티
올해는 KLPGA 5관왕 '김효주 볼'
갤러리들 선수 성적 따라 제품 구매
경쟁사에 패하면 매출 부진으로 연결

"아~!" 긴 탄성이 터져나왔다. 김하늘(26·비씨카드)의 세컨샷이 워터해저드로 들어갔다. 지난 9월 강원 평창의 휘닉스파크 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KDB대우증권 클래식 마지막 날 김하늘과 전인지(20·하이트진로)의 연장전 장면이다. 김하늘의 세컨샷 실수로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 전인지는 이날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안았고, 김하늘은 시즌 5번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탄성의 주인공은 김하늘이 아니다. 그의 가족도, 갤러리도 아니었다. 그의 용품을 후원하는 혼마골프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계약 선수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한다. 선수의 성적은 해당 브랜드의 성능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계약 선수들의 호성적은 높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부진한 성적은 성능이 떨어지는 클럽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최근 골프용품 브랜드의 선수 후원·마케팅이 부쩍 늘었다. 브랜드를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프용품 브랜드의 선수 후원·마케팅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후원 선수가 경쟁사 브랜드 후원 선수에게 패하면 한동안 후유증에 시달린다.

박상석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골프숍 매니저는 "소비자들은 트렌드에 민감하다. 작년에는 박인비의 호성적으로 '박인비 드라이버(젝시오)'와 '박인비 퍼터(오디세이)'가 대세였다면 올해는 '김효주 볼(스릭슨)'이 잘 나간다"며 "아직도 유명 선수들의 용품 판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골프용품사가 선수 마케팅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선수 마케팅에 뛰어드는 용품사 중 활짝 웃은 브랜드는 일부에 불과하다.

올해 선수 마케팅의 최대 수혜 브랜드는 던롭과 혼마골프다. 지난해 박인비(26·KB금융그룹)의 선전으로 재미를 본 던롭은 올해도 박인비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박인비는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3승과 세계랭킹 1위 탈환으로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던롭은 올해 초 김효주(19·롯데)와 골프공 사용 계약, 박인비 특수 못지않은 화제를 낳았다. 김효주는 올해 KLPGA투어 5승을 차지하며 상금왕과 대상을 확정지었다. 또 L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내년 시즌 LPGA투어 출전권을 획득, 국내 골프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혼마골프는 두 토끼 사냥에 성공했다. 젊은 클럽으로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 선수 마케팅을 시작해 최강 골프단으로 우뚝 섰다. 김하늘, 김혜윤(25·비씨카드), 이승현(23·우리투자증권), 허윤경(24·SBI), 김다나(25·넵스)로 구성된 '팀 혼마'는 올해 허윤경(2승)과 이승현(1승)이 3승을 합작하며 명성을 이었다.

국산 골프볼 브랜드 볼빅은 이미향(21)의 미즈노 클래식 우승으로 다시 한 번 국산 브랜드의 입지를 다졌다. 지난해 이일희(26)의 우승으로 첫 우승 선수를 배출한 볼빅은 타이틀리스트, 스릭슨 등 외국 브랜드 틈바구니 속에서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퍼터 피팅으로 유명한 핑은 전인지의 2승으로 체면을 세웠다.

오상민 기자 golf5@

박주영, 너의 의미를 보여줘

슈틸리케팀 오늘밤 요르단 평가전 합류
"가치 증명해야"… 명예회복 마지막 기회



내년 1월 열리는 호주 아시안컵에 대비해 중동 원정을 떠난 한국 축구대표팀이 14일 오후 11시 30분(한국시간) 암만의 킹 압둘라 경기장에서 요르단과 평가전을 갖는다. 요르단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4위로 아시아에서 이란(51)-일본(52)-우즈베키스탄(65)-한국(66)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 아시아의 신흥 축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어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이번 중동 원정 명단에는 이동국(35, 전북)과 김신욱(26, 울산) 등 기존 대표팀 공격수들은 부상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대신 박주영(29, 알 샤밥·사진)과 이근호(29, 엘자이시 SC), 조영철(25, 카타르 SC)이 공격수로 합류했다. 이 중 박주영이 단연 눈에 띈다.

박주영은 지난달 18일 알 힐랄과의 경기에서 사우디 리그 데뷔골을 터뜨렸다. 리그 득점은 셀타비고 임대 시절인 지난해 3월 16일 데포르티보전 이후 582일 만이다. 25일 알 파이살리전에도 교체 출전해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였다. 31일 알라에드전에선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다. 박주영의 활약에 슈틸리케 감독도 반응했다. 중동 평가전 명단에 박주영을 포함시키며 "선수 스스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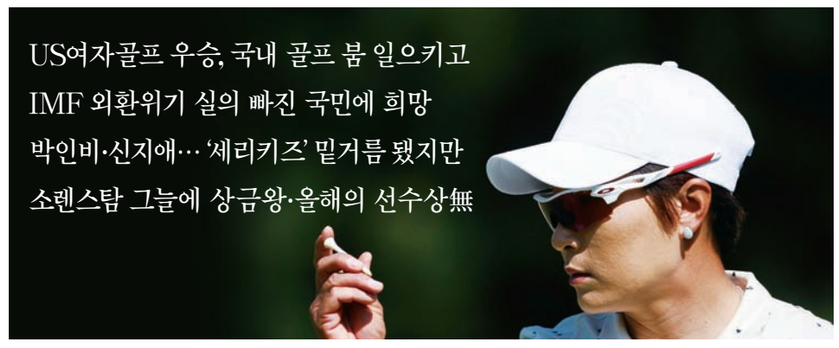
기성용(25, 스완지시티)은 10일 아스널전에서 정확한 패스와 안정적 경기 운영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팀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던 윤석영(24, QPR)도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최성근 기자 sgchoi@

오상민의 스포츠 인물사

무관의 여왕 **박세리**

끝나지 않았다… '그랜드슬램' 최후의 승전



한국 스포츠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명장면이 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건 박세리의 '맨발 투혼'이 아닐까. 1998년 7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에서 박세리(37·KDB산은금융·사진)는 연장 혈투 끝에 드라마틱한 우승을 차지했다.

한 편의 드라마였다. 당시 박세리의 우승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실의에 빠진 대한민국에 희망이라는 메시지로 다가왔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기쁨과 환희는 더했다. 그날은 '골프 강국 코리아'가 용트림한 날이다. 1997년 LPGA 프로테스트를 1위로 통과한 박세리는 이듬해인 1998년부터 본격적인 승수 쌓기를 시작했다.

그의 골프인생의 클라이맥스는 2004년이다. 미켈롭울트라오픈 우승으로 명예의 전당 입회 조건을 충족시켰고, LPGA투어 10년째인 2007년에는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박세리의 '맨발 투혼'은 김미현(37), 박지은(35), 한희원(36), 장정(34) 등 LPGA투어 진출 1세대 선수들의 우승 릴레이로 이어졌고, 지금의 박인비(26·KB금융그룹), 신지애(26), 김인경(26·하나금융그룹), 최나연(27·SK텔레콤), 유소연(24·하나융그룹) 등 '세리 키즈'의 밑거름이 됐다. 무엇보다 국내 골프 붐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박세리는 단 한 번도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적이 없는 무관의 여왕이기도 하다. 박세리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는 애니카 소렌스탐(44·스웨덴·은퇴), 캐리 웹(40·호주)이 당대 최고의 골프 영웅으로 군림하던 때다.

박세리는 1998년 메이저 대회 2승(LPGA 챔피언십·US여자오픈)을 포함해 4승을 차지하며 신인왕을 달성했고,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5승을 쓸어담았지만 상금왕은 전부 소렌스탐에게 빼앗겼다. 그에게 유일한 타이틀이 있다면 2003년 베어트로피(최저타수)다.

지난해 메이저 대회 3연승을 기록하며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휩쓴 박인비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박세리가 필드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마지막 남은 목표 때문이다. 그랜드슬램과 올림픽 출전이다. 앞으로 나비스코 챔피언십이나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그렇다고 평생 그랜드슬램만 바라보며 선수생활을 연장할 수도 없는 일이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열리는 2016년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골프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박세리가 비운의 아이콘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희대의 영웅으로 남을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녀의 인생 드라마가 궁금증을 더한다. 오상민 기자 golf5@



Mobile DAUM 비타민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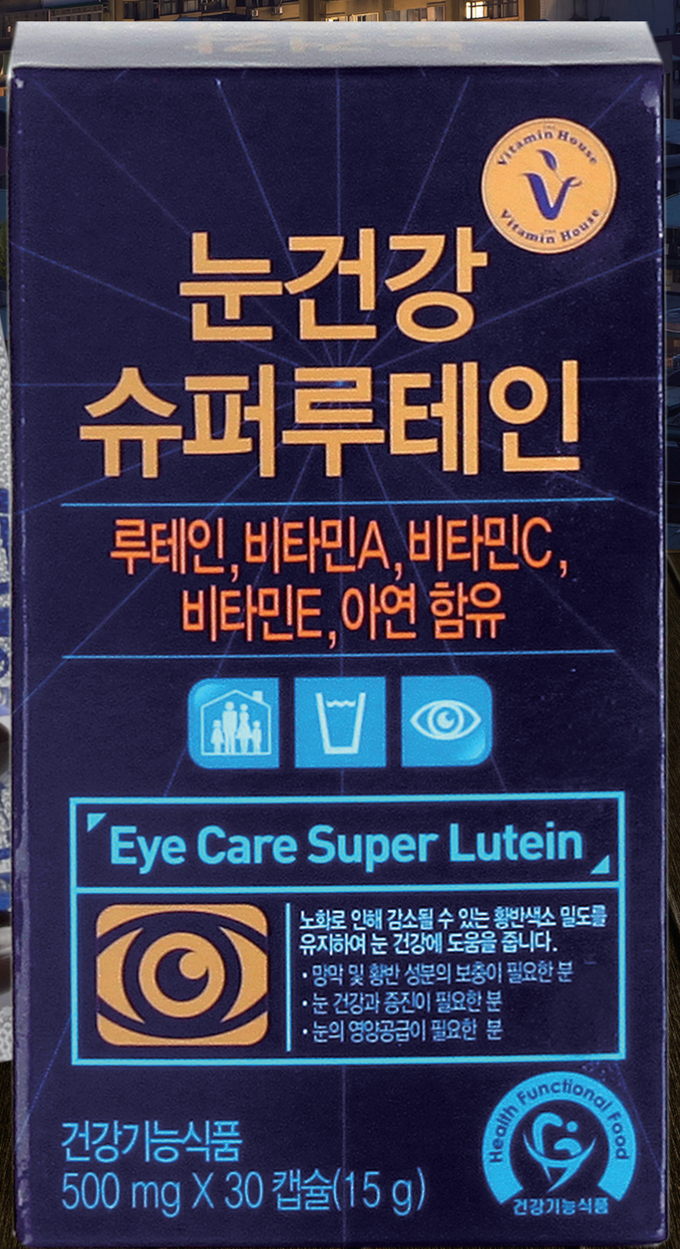
눈건강 슈퍼루테인

Eye Care Super Lutein

침침하고 흐릿한 눈을 시~원하게!
맑고 선명한 눈을 위한 현대인의 선택!

1일 1캡슐로 루테인 12mg, 비타민A 700ugRE 섭취





루테인은 눈속의 망막과 황반의 구성성분으로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가까운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코너 에서 구입하세요!

“제2의 단통법” “시장질서 확립”



직장인 김지혜(24·여)씨는 최근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책들을 모두 구매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지금처럼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구매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21일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서점들은 재고 떨이를 위해 대대적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된 지 18개월이 안 된 책(신간)에 대해서만 할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난 책들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매겨 판매할 수 있고 실용서나 초등 참고서 등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항목이다.

하지만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신간, 구간 상관없이 모두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외 규정이던 실용서와 초등 참고서도 할인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지나친 도서 가격 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새로운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2의 단통법이라는 비판이 시행 전부터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은 어떨까.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선화(43·여)씨는 도서정가제 시행에 대해 묻자 한숨부터 쉬었다.

이씨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책값이 갑자기 오르는 것 같아 부담이 크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전 세일을 통해 올 겨울방학과 내년 새 학기에 사용할 참고서와 학습서를 미리 준비했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 개정 후 할인율이 높았던 실용서나 참고서 뿐만 아니라 전체 도서 가격은 약간씩 상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도입 후 도서

현행 도서정가제		개정 도서정가제
모든도서(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제외)	대상범위	모든 도서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포함)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	적용 기간	18개월 이내 및 경과 간행물(구간은 재정가 가능)
정가의 10%(가격할인)+판매가의 10%(간접할인)	할인 범위	정가의 15%이내 (가격할인10%이내 + 간접할인)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등 공공기관	적용예외 기관	사회복지시설
100만원	과태료	100만원

소비자 부담 는다는데…
실용서·참고서 등 가격 올라 시행 앞두고 ‘사재기’ 바람도

한 권당 평균 가격은 현재의 1만4678원 대비 22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은 지난 5일 기자감담회에서 “출판사 간의 담합,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을 때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학기 초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생각이다. 초등 참고서를 펴내는 출판사를 직접 만나 거품 가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가격 정착될까…
책값·할인율 거품해소 기대속 카드사 제휴·무료배송은 과제

그렇다면 출판업계는 어떤 반응일까.

출판사 여행마인드를 운영 중인 신수근 대표는 개정된 도서정가제에 대해 “새 도서정가제가 본격 시행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그동안 만연해 온 도서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고 보다 합리적 도서 가격 제도가 정착돼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서점연합회 박대춘 회장은 “새 도서정가제가 가뭄에 단비 역할은 하겠지만 이것이 긍정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완전도서정가제를 주장했다가 조금 물러선 경우다. 카르텔이 형성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20~25%의 마진밖에 확보가 안 됐다. 문체부에서는 새 도서정가제를 3년 한시법으로 두고 지켜본 후 재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효과가 없다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에는 아직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카드사 제휴 할인과 같은 제3자 할인 부분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다. 서점은 15% 할인이 최대지만 카드 할인을 더하면 15%를 초과해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료 배송과 카드 제휴 할인에 대해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시행령의 규정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춘 회장은 “결국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이 카드 제휴를 통해 편법을 쓰면 카드사 제휴가 어려운 동네 서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새 도서정가제에 대해 “프랑스의 ‘랑법’처럼 완전도서정가제를 실시해 온라인서점의 무료 배송을 규제함으로써 동네 서점을 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오프라인까지 넘보는 온라인 서점

인터파크·예스24, 전자책 체험·대여 공간… 종이책도 판매

“국내 서점을 다 죽인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그나마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국서점연합회 박대춘 회장은 온라인 서점들의 오프라인 진출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반응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서점 인터파크와 예스24는 오프라인 공간을 속속 오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지하에 ‘북파크’를 열었다. 전용면적 424.80㎡(약 130평)의 ‘북파크’는 독자와 저자가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문화공간으로 도서대여 및 현장수령도 가능하다.

예스24도 지난달 30일 신논현역에 ‘크레마 라운지’를 오픈했다. ‘크레마 라운지’에서는 예스24의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원’과 ‘크레마 샤인’을 체험할 수 있고 매주 한 권의 종이책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달 중에는 픽업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온라인 서점들이 오프라인에 진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예스24 관계자는 “온라인 서점이다 보니 전자책 단말기를 독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접점이 없었다. 그래서 전자책 체험관을 열었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관계자 역시 “독자들과 소통할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고, 오프라인 공간 자체가 브랜드 마케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예스24 ‘크레마 라운지’에서는 매주 한 권씩 종이책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며, 인터파크의 ‘북파크’에서는 ‘북파크’ 내에 비치된 전자기기 및 단말기에서 책을 결제하면 바로 현장에서 수령 가능한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오프라인 서점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책 대여점과 문화행사만을 하겠다는 인터파크가 약속을 깨뜨렸다”며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 시장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온라인 서점들이 빼앗아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집회를 해서라도 오프라인 판매 행위를 철저하게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예스24 ‘크레마 라운지’(위쪽)와 인터파크 ‘북파크’



150만부

‘미생’ 올해 첫 밀리언셀러에 등극 드라마 방영후 판매량 수직상승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전9권) 이 만화책으로 출간돼 올해 첫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tvN 금토드라마 ‘미생’은 7일 방송이 평균 시청률 5.2%, 최고 시청률 6.4%(닐슨코리아 제공)를 돌파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원작인 만화책 ‘미생 1~9 완간 세트’도 최근 누적 판매 150만부를 달성했다. 드라마 ‘미생’이 시청자의 인기를 얻자 만화책 ‘미생’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 드라마 첫 방송 직후 ‘미생’ 책은 하루 2000세트 이상 팔리며 예상보다 빠르게 150만부 판매를 돌파했다.

150만부 돌파는 ‘미생’의 탄탄한 스토리와 흥미진진한 구성, 사실적 묘사 등 높은 완성도에 웹툰의 높은 관심이 크게 작용했다. 물론 드라마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미생’의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김지연 대리는 “드라마가 방송된 후 등장인물 간의 관계와 배경,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는 에피소드 등에 관한 궁금증 때문에 원작을 찾아 읽어야겠다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인 것 같다”며 “드라마 ‘미생’ 방영 후 여성 독자층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고, 방송 전 30·40대 독자층이 많았다면 드라마 방송 후 20대 독자층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윤태호 작가의 ‘미생’은 열한 살에 한국기원 연구생으로 들어가 프로바둑기사만을 목표로 살아가던 청년 장그래가 입단에 실패하고 종합상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회사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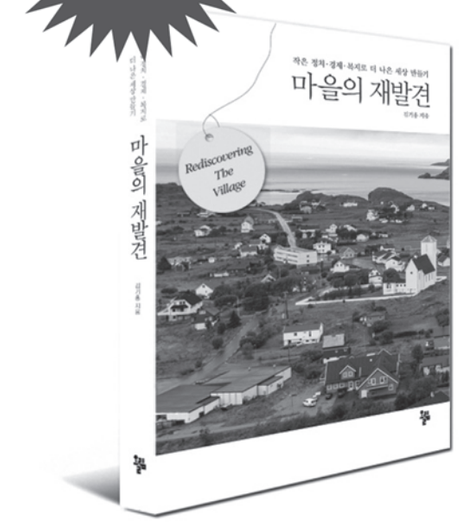
‘미생’은 포털사이트 다음 웹툰에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년7개월가량 연재됐으며, 10억뷰를 기록했고 책으로는 2012년 9월 1권이 단행본으로 나오기 시작해 2013년 10월 총 9권으로 완간됐다. 위즈덤하우스는 “완간된 지 1년이나 지났는데 엄청난 판매 결과를 이뤄낸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두고두고 읽을 책만 만듭니다 오월의봄
문의 02-720-3131

인류의 미래는 ‘마을’에 있다!

2014 하반기 화제의 신간!



마을의 재발견
작은 정치·경제·복지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김기홍 지음 | 350면 | 15000원

국가는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고
세계화는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 인류는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자연재해와 자원 위기, 부의 편중과 사회적 갈등, 불안한 사회안전망과 복지 위기, 저출산·고령화 등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포위되어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도 국가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안은 ‘마을을 살리는 것’이다. 인류의 오랜 지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village community)’를 새롭게 보고 그 가치를 활용한다면, 국가는 고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을 것이며 개인의 삶은 보다 인간다워질 것이다.

국가는 부의 편중, 방사능 유출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계층 간 갈등,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저자는 ‘마을 공동체’를 대안으로 내세운다. 마을을 되살리고 마을 간의 유기적 연대를 추진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향신문

마을의 작은 정치, 작은 경제, 작은 복지는 국가 단위의 정치, 경제, 복지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그러기에 국가가 마을 공동체 복원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연합뉴스

사회 갈등과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선일보


김기홍

농민신문 기자. 고려대 사회학 박사. 그동안 농촌 사회·경제·지방·문화 등의 분야를 취재해왔으며, 지금은 농촌 마을의 사회자본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다문화는 물론, 미국과 일본의 지역 활성화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연구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가들과 협력, 마을학(villiology)의 체계화와 세계마을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마을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홈쇼핑株 '최저가 찬스' 왔나

제7홈쇼핑 출범 앞두고 낙폭 확대… 시장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내년 제7홈쇼핑 개국을 앞두고 TV홈쇼핑 업계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낙폭을 확대하는 홈쇼핑 관련주를 두고 "저가매수의 기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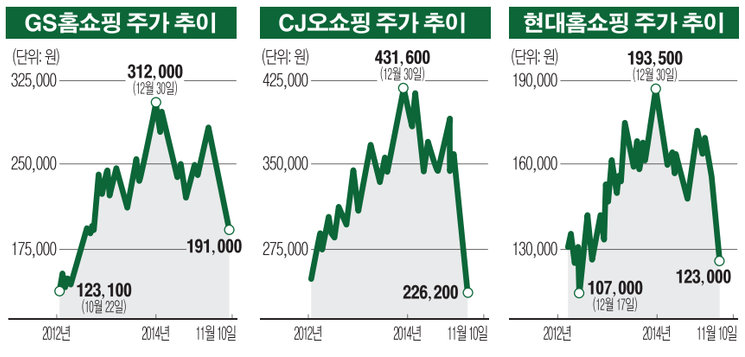
지난 12일 정홍원 총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TV 홈쇼핑사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30여명의 기업인들은 대형 유통기업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요구, TV홈쇼핑사의 재고물량 떠넘기기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기도 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정 총리의 발언도 TV홈쇼핑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동안 홈쇼핑 업체는 정부부처와 정치권,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아왔다. 이른바 홈쇼핑의 △슈퍼갑 행태 △과도한 재고 떠넘기기 △납품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비판도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홈쇼핑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막고 중소기업까지 지원하기 위해 제7홈쇼핑을 추진했다.

TV홈쇼핑 업계에는 GS홈쇼핑과 CJ오쇼핑을 선두로 N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1년 홈앤쇼핑이 6번째 사업자로 뛰어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7홈쇼핑의 출범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7홈쇼핑은 앞서 출범한 여섯번째 홈쇼핑인 '홈앤쇼핑'과 맥락을 함께할 예정이다. 고가의 소비재 대신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편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7홈쇼핑 도입 추진이 발표되면서 홈쇼핑 관련 주가는 급락했다. 올 들어 하락세를 지속해온 관련주가 낙폭을 확대한 것. 연이은 정부의 압박 발언도 홈쇼핑 주가 상승 반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최근 주가의 흐름을 두고 오히려 '저가매수의 기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1년 제6홈쇼핑이던 홈앤쇼핑 진출 당시, 다른 홈쇼핑 주가는 최대 25%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업계 빅3를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주가는 1년여 만에 회복됐다. 때문에 제7홈쇼핑의 진출이 관련 업계에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업계 빅3로 불리는 CJ오쇼핑과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미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제6홈쇼핑이던 홈앤쇼핑이 개국하자 홈쇼핑 주가는 25%까지 하락했지만 홈쇼핑 체질 개선으로 주가를 회복했다"며 "(최근) 주가하락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제7홈쇼핑 역시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판매 수수료를 20%로 낮추면 황금채널대로 진입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SO 수수료 급등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후강퉁'의 후광株는?

中당국 경제활성화 소비주 기대… 배당·증권주도 주목

후강퉁 시행을 앞둔 열기가 뜨겁다.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이 오는 17일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후강퉁은 홍콩에서 중국 본토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후구퉁'과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투자가 가능한 '강구퉁'으로 분류된다. 이중 강구퉁은 기존부터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후구퉁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내 투자자가 후강퉁 시행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국 본토 A주 종목은 568개로, 전체 상장 종목 수의 약 59%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 가운데 소비주, 배당주, 증권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장 가능성, 높은 배당 수익률, 거래 활성화에 따른 투자 메리트 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소비 주도형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화장품, 식품주 등의 소비관련 주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현대증권에서는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화장품 업체인 상하이자화(上海家化), 유제품 업체인 네이멍구이리(內蒙古伊利) 등을 추천했다.

삼성증권에서도 네이멍구이리를 선호주로 제시하며 "중장기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비 부문 개선에 따른 유제품 업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DB대우증권에서는 증류주 업체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台), 의약품 업체 텐스리(天士力), 캉위안(康緣)제약, 여행업체인 중국국제여행(中國國旅) 등을 꼽았다. 또한 화샤(華夏)은행, 난징(南京)은행, 상하이차, 다친(大秦)철도, 성이(生益)테크 등에 대해 "고배당 매력과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선호도가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시진핑 정부의 민생보장, 외교 등에 따른 정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민생을 챙기는 한편 국유기업 개혁, 자본시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 배당 정책 강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종목별로는 배당률이 높은 상하이자동차, 화위(華域)자동차, 위퉁(宇通)버스 등을 제시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IT기업 텅쉰(騰迅)을 유망주로 추천했다. "텅쉰은 홍콩에만 상장돼 있어 후강통 시행 이후 가장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후강퉁 시행에 발맞춰 외국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상하이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하장청 기자 jcha@

"섀도 보팅제 폐지로 주주환원 정책 늘것"

교보증권 보고서

내년 1월부터 상장사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대리 규정인 섀도보팅이 폐지되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교보증권은 "섀도 보팅제 폐지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필수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섀도 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석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을 불참 주주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비율로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섀도 보팅제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초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기업들은 섀도 보팅제 폐지에 따른 불편함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이 부각되고 있지만 당장 다음 주주총회부터 섀도 보팅제 폐지가 시행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업들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와의 소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인 25%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들이 당장 내년부터 섀도 보팅제 폐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 코스닥 기업이나 코스피의 중소형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25% 미만이고 특별한 2대주주가 없는 기업에선 '슈퍼 개미'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문선영 기자 moon@

'저금리에도 두각 보이는 은행株

기업·가계대출 증가로 이자수익 증가 기대

은행주(株)가 기업과 가계 등 전 부문에 걸친 대출 증가 추세로 인해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은행은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이자이익 증가가 기대된다.

14일 KB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예금은행 원화대출(신탁계정 포함) 잔액은 118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출 증가율 4.7%를 큰 폭으로 상회한 것이다.

대출 증가율의 견조한 증가세는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했다.

대출잔액을 차주별로 보면 기업대출은 총 637조7000억원으로 이 중 중소기업 대출은 50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났다. 이 부문의 대출은 기술신용대출 노력 등으로 10월 중 순증액이 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 부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한 167조6000억원에 달했다. 대기업 부문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10월 순증액이 2조7000억원에 달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추세 역시 눈에 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늘어난 507조7000억원에 달했다.

대출 증가 추세는 은행의 이자이익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떨어질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창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소기업 대출 동향이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 하락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양호한 대출 증가율은 은행의 이자이익 증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ETF 대항마' ETN 17일 첫 선

6개 증권사 10개 상품출시 초기 시장 선점 잰걸음

오는 17일 ETN(상장지수증권)이 첫선을 보이면서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TN은 기존에 출시된 ETF와 유사하지만 운용할 수 있는 기초지수와 전략의 범위를 넓혀 저금리 국면에 지친 투자자들과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ETF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매매 거래가 가능해 수익률 하락이 예상될 때는 매도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7일 ETN 개장일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KDB대우증권 등 6개 증권사가 10개 상품을 일제히 출시한다. ETN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1조원 규모인 대형사들이 첫 시장 선점에 나서는 셈이다.

각 증권사들은 시장지수에 환율, 롱숏, 헤지, 합성전략 등을 가미해 저금리 국면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마련 채비를 마쳤다.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ETN을 대안 상품으로 삼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영 대우증권 파생상품운용부 부장은 "각 증권사가 내놓는 ETN들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저성장·저금리를 돌파할 새로운 상품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다만 ETN은 증권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상품이므로 각 회사의 신용도를 유의깊게 살펴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성제 우리투자증권 파생상품운용부 과장도 "ETN은 ETF와 수수료는 비슷하지만, ETF가 기존에 나온 벤치마크만을 추종해 성과가 부진한 점을 대폭 개선시키고 증권사들이 자체 LP로 나서 유동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

ETN과 ETF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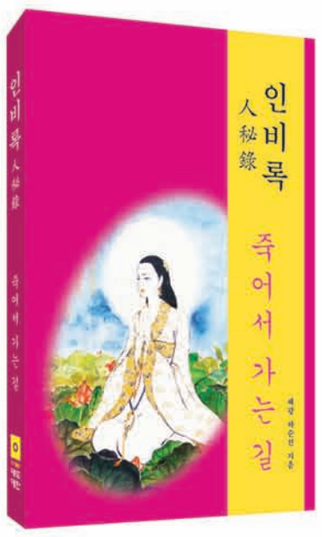
ETN (상장지수증권)		ETF (상장지수펀드)
증권사	발행사	자산운용사
파생상품	상품형태	펀드
있음	만기	없음
5종목	최소 기초종목	10종목
약정된 기초지수 수익 제공	수익구조	운영실적에 따라 수익 다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비록(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어떤 삶을 살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서출판 대도대한 I 값 15,000원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리브로 / 알라딘 / 예스24
부산)영광도서, 부산)세기서림, 인천)대한서림, 인천)부평문고, 인천)인천서림, 대전)보문불교, 대전)계룡문고, 대전)중앙출판, 대전)KG북플러스, 대구)세원출판, 대구)한일서적, 울산)처용서림, 광주)충장서림, 광주)삼복서점, 광주)초원문고, 파주)자유서적, 안양)중앙문고, 안양)대동문고, 안산)대동서적, 군포)자유문고, 구리)동원서적, 부천)경인문고, 광명)일지서적, 이천)삼성문고, 오산)운암문고, 수원)율전문고, 원주)동아서관, 강릉)영동서적, 춘천)광장서적, 춘천)춘천문고, 청주)일선문고, 청주)홍문당, 충주)문학사, 제천)제일서적, 천안)열린문고 구미)춘양당, 안동)교학사, 경주)경은서적, 김해)가야서점, 창원)창원서적, 창원)대신서점, 진주)진주문고, 남해)해양당, 전주)홍지서림, 익산)대한서림, 군산)군일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점, 목포)국제서림, 제주)탐라도서 등

문의 : 063-643-7285 www.ddblog.co.kr

신가치투자로 돈 번 사람들을 확인하시려면 〈 www.segerotv.com 〉 스마트폰 청취가능!

"주식 투자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세계로TV의 신가치투자로 돈 번 사람들

주식 투자자는 꼭 읽어야 할 책! 주식 투자 베스트셀러!
회원들이 증명하고 국내 여러 기관이 인정한 최고의 투자법!



김원기 지음 I 248쪽
글로벌북스 I 값 14,000원

◉ 2014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 수상!
◉ 서적 구매 독자를 위한 ₩ 65,000 〈세계로 TV〉 1일 무료 이용권
◉ 무료 주식 강연회

강의 : 김원기 대표
주제 : 100년만에 온 바이오장!
일시 : 11월 15일, 11월 29일, 12월 5일 토요일 오후 2~5시
장소 : 5, 6호선 공덕역 6번출구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일시 :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2~5시
장소 : 워커힐 컨벤션센타 3층 코스모스홀
혜택 : 무료회원 가입시 도장지갑 증정

※ 선착순 입장 / 전화예약안됨

문의 : 02-336-2226

◉ 출판사 참여문의 ☎ 070-4333-0098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삼성테크윈, 항공·방산기업으로 '항로변경'?

美 P&W에 1조 규모 엔진부품 계약… 탈레스 지분가치 오르며 사업전환 가능성



삼성테크윈이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미국 P&W(프랫 앤드 휘트니)로부터 9억달러(1조원) 규모의 항공기 엔진부품 공급권을 획득하면서 삼성테크윈의 항공·방산업체로 도약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삼성테크윈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수익창출력에 대해 의심을 거두고 있지 않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항공방산업체로의 삼성테크윈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시장에서는 이번 P&W와의 엔진부품 장기 공급계약 체결에 주목하고 있다. 항공기 부품사업이 단순 하청에서 RSP 파트너로 격상되면서 매출확대와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테크윈은 카메라모듈, 반도체부품 회사로 알려져있지만 사실 부품과 방산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60%가 넘는다.(항공기엔진 39.1%, 방산(K-9자주포) 22.3%). 기존 사업은 분리되거나 매각됐고, 남아있는 칩마운더가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특히 국내 국책 항공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FA-50 전투기 엔진, KUH 수리온 엔진 매출 증가 예상되면서 매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테크윈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탈레스의 지분가치 부각되고 있다. 기존 삼성항공이 진행하던 방위사업부를 넘겨받은 삼성전자는 지난 2000년에 프랑스 탈레스와 50% 비율로 합작법인을 만들었다. 이 삼성탈레스 지분을 2010년 삼성테크윈이 2081억원에 다시 넘겨받았다. 삼성탈레스는 지상무기시스템, 광전자시스템, 레이더시스템, C4I, 항공·전자전 시스템 부문을 영위하는 방산 업체이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후 (삼성탈레스)가 연결 대상 업체로 설정할 경우 삼성테크윈의 사업은 사명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구조가 유사한 LIG넥스원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삼성테크윈의 사업 구조 전환에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도미사일을 제외한 사업구조가 비슷한 LIG넥스원의 시가총액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전투지휘체계, 지상무기시스템과 광전자시스템 등 방산업을 영위하는 삼성탈레스 지분 50% 보유하고 있어 주목된다"며 "사업 방향이 항공방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항공방산 전문업체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항공방산업체로의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자 주가는 연일 급등세를 타고 있다. 2012년 8월을 넘다들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10월 24일 2만7000원대까지 내려앉았지만 이후 급등세를 타 11월 14일 3만 7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中 대형제약사 2세들 '셀트리온' 찍었나

26개사 31명 방문 국내 제약기업과 합작투자 모색



중국 유력 제약사 2세들이 셀트리온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제약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이 셀트리온의 중국 진출 교두보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빅10 제약사 천사력그룹과 부창그룹 등 26개사 31명의 제약 2세 방문단은 지난 2~4일 셀트리온과 대웅제약, 보바스병원을 방문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중국 유력 제약사에서 우리 회사를 방문해 설비 등을 직접 보고 간 것은 맞다"며 "다만 보건산업진흥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특별한 이슈가 있던 것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이들 방문단이 국내 제약기업과 병원을 찾은 이유는 바이오시밀러와 의료기기, 재활의료 분야에 대한 합작투자 방안 모색이다.

특히 중국 제약순위 8위의 천사력그룹은 셀트리온과의 사업협력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이 이번 방문단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대중국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1994년 설립된 천사력그룹은 바이오의약산업을 핵심으로 건강·재활의료 분야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이뤘다.

천사력그룹 회장이 셀트리온을 직접 방문했고, 합작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계약체결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은 중국 제약 2세들의 이번 방문을 통해 향후 중국 진출을 위한 인적 정보네트워크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중국약품시장보고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시장규모는 연평균 12%의 성장속도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주요 다국적 제약사 및 생명공학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및 설비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이 생산한 제품은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납품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해외 현지 파트너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관사 선정에 착수했다.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2조원 안팎으로 추산돼 대형 바이오주가 될 전망이다.

송영록 기자 syr@

'빛뚱보' 대한전선은 썰렁
'퀸CAR' KT렌탈은 후끈

울고 웃는 'M&A 작대기'

M&A 시장에서 대한전선과 KT렌탈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대한전선 매각은 유찰이 우려되지만 KT렌탈은 잠재적 인수후보자들이 하나씩 공개되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실시된 대한전선 본입찰에는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만 단독 입찰했다. 앞서 글랜우드, SG그룹 등 3파전이 예상됐으나 두 곳은 본입찰 전 인수를 포기했다.

가격 문제로 유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당초 1월로 계획했던 매각 완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대한전선은 지난 2009년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뒤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실패했고, 채권단이 7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매물로 나왔다.

매각 걸림돌은 역시 대규모 부채였다. 대한전선은 현재 채권단과 일반 채무자에 각각 7000억원, 2000억원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 여기에 스톤건설, 파인스톤CC 등의 우발채무 변제 방안도 확실치 않다. 이 부분을 두고 한앤컴퍼니와 채권단의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에서는 대한전선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KT렌탈 매각은 예비입찰을 앞두고 인수후보자들이 하나씩 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노무라증권과 인수자문사 계약을 맺었다.

효성의 가세로 KT렌탈 인수전에 참여하는 후보는 SK네트웍스, SFA , 일본 오릭스, 한국타이어 등 전략적 투자자(SI) 5곳, 그리고 어피니티, MBK파트너스 등 재무적 투자자(FI) 2곳을 포함해 총 7곳으로 늘었다.

이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든 곳도 있어 잠잠했던 KT렌탈 인수전이 다시 뜨거우지고 있다. KT그룹은 4년 전 외형을 확대하면서 금호렌터카를 인수했고, 지금의 KT렌탈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어 황창규 회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통신업과 관계가 없는 금융부문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KT렌탈 인수전은 예비입찰을 통해 후보군이 좁혀지면 SI와 FI가 짝을 이뤄 본입찰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KT렌탈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렌터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낮을수록 수익이 높아진다. FI 입장에서는 KT렌탈의 신용등급을 위해 SI가 필요하고, SI 입장에서는 높은 인수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전략적으로 SI와 FI가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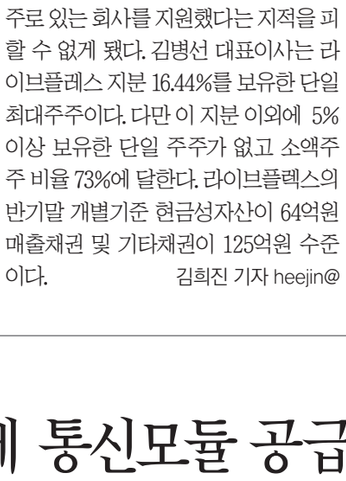
현재 KT는 KT렌탈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교보생명보험(13.23%), 산은캐피탈(9.48%), 한국투자증권(5.72%), 현대라이프생명보험(5.66%), 현대해상화재보험(3.82%), 하나대투증권(4.09%) 등이 나눠갖고 있다. KT는 나머지 지분을 사들여 KT렌탈지분 100%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비입찰은 오는 20일이다.

황윤주 기자 hyj@

공시돋보기

라이브플렉스 대표, 형 회사에 130억 유증참여

회삿돈 주고받는 '용감한(?) 형제들'



캠핑용 텐트 생산업체인 라이브플렉스가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업체인 플레이텍 지원사격에 나섰다. 플레이텍은 김병진 라이브플렉스 대표이사의 형인 김호선 대표가 지난 3월 인수한 회사로, 라이브플렉스는 플레이텍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브플렉스는 플레이텍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855만3000주를 130억원에 현금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취득 후 지분비율은 52.2%로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설 전망이다. 회사 측은 "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효과를 키우기 위해 지분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플레이텍은 김병진 라이브플렉스 대표이사의 형인 김호선 대표 측이 지난 3월 다스텍(현재 플레이텍)의 33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인수한 회사다.

다스텍은 지속된 실적 악화로 지난해 자본잠식률이 87.74%를 기록했고, 이전 최대주주인 INJ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가 KT ENS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었다. 이에 3월 80% 감자를 단행한 이후 김호선 대표를 상대로 제 3자배정 유증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으며, 김 대표가 회사를 인수한 인후 사명을 플레이텍으로 바꾸고 5월에 또 다시 보통주 2607만3059주를 감자했다.

플레이텍의 실적은 지난해 연결기준 370억원 매출에 11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67억원 매출 규모와 맞먹는 6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반기 말 기준으로 플레이텍의 부채는 38억9000만원, 자본은 32억3000만원으로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상황이다.



결국 라이브플렉스가 플레이텍 유상증자에 참여해 130억원의 현금실탄을 제공한 상황이어서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지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병선 대표이사는 라이브플레스 지분 16.4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이다. 다만 이 지분 이외에 5% 이상 보유한 단일 주주가 없고 소액주주 비율 73%에 달한다. 라이브플렉스의 반기말 개별기준 현금성자산이 64억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이 125억원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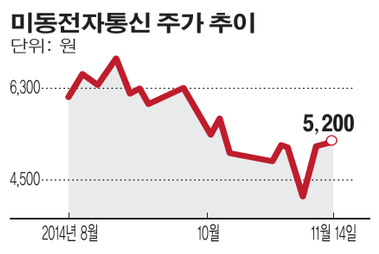
김희진 기자 heejin@

미동전자, BMW에 통신모듈 공급

미동전자통신은 카 인포테인먼트 관련 전문 제조업체인 모바일어플라이언스와 내년말까지 독일 BMW에 통신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금은 5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419억원 대비 11.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계약은 동사가 개발한 자동차용 모듈이 완성차에 적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 모바일어플라이언스를 통해 독일의 BMW 본사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되는 제품은 BMW 진행 차종에 탑재되는 통신 모듈인 CAN(Control Area Network)모듈이다.

김범수 미동전자통신 대표는 "해외 완성차 업체향으로의 통신 모듈 공급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통신 모듈은 차량용 첨단 안전운전 보조지원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 차량과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국책과제로 진행 중인 전기차용 Active Vess(Virtual Engine Sound System) 등 영상인식기반 ADAS 개발과 중국, 미국, 호주 등 기존 블랙박스 사업의 해외 진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글로벌 ADA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진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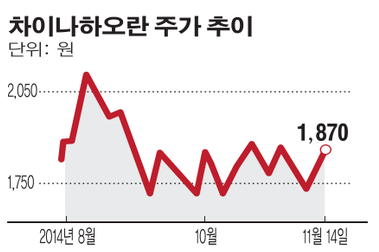
송영록 기자 syr@

차이나하오란, 3분기 순익 31% 상승

차이나하오란은 잠정실적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액 933억 3000만원, 영업이익 81억 2000만원, 당기순이익 47억 6000만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안화(RMB)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0.35%, 영업이익은 20.16%, 당기순이익은 31.36%가 각각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실적은 매출액 17.29%, 영업이익 17.45%, 당기순이익 42.84%의 증가를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출 호조에 대해 장하오롱 대표는 "고부가가치인 백색카드지의 매출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이 매출 상승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4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성공적으로 끝난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신규 화학기계펄프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생산시설의 본격적인 가동이 이루어지는 내년 하반기에는 원재료 구매 자금이 줄어 순이익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송영록 기자 syr@



에이엔피, 자회사 덕에 영업익·순익 흑자전환

현대·기아차에 일부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자회사덕에 에이엔피가 중국 실적이 급증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

14일 에이엔피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인 자회사 용산이 중국 실적이 급증하면서 수익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3분기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기아차와 중국에 동반 진출함에 따라 현재 3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 실적 증가로 2만평 규모의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등 중국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높지만 중국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에이엔피는 소외돼 있다.

투자자들에게 에이엔피는 인쇄회로기판(PCB)이 주력업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이엔피는 자회사 용산이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로서 SUN VISOR의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90%를 공급하고 있다. 매출 비중도 PCB는 15%대이며 자동차부품이 83%에 달해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로 거듭났다.

실제로 에이엔피는 지난 13일 올해 3분기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한 5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한편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중국 충칭 4공장을 30만대 규모로, 창저우 5공장을 20만대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충칭 공장과 창저우 공장이 예정대로 각각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완공되면 현대차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별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에이엔피의 중국 매출도 동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현대자동차그룹 동행어 사전

동행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P184

ㅊ

첫운전

[First Driving]

명 1 생애 처음 자동차를 움직여보며 안전에 대해 배워보는 일

어린이들이 직접 차를 운전해보며 교통안전을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키즈오토파크'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활동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는 현대자동차그룹

키즈오토파크_www.kidsautopark.org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시, (사)한국생활안전연합과 공통으로 설립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에 주행교육장, 면허시험장 등 실제 교통상황에 가까운 교육환경으로 조성



동행으로 미래를 펼치다

HYUNDAI MOTOR GROUP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철강, 건설을 중심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동행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